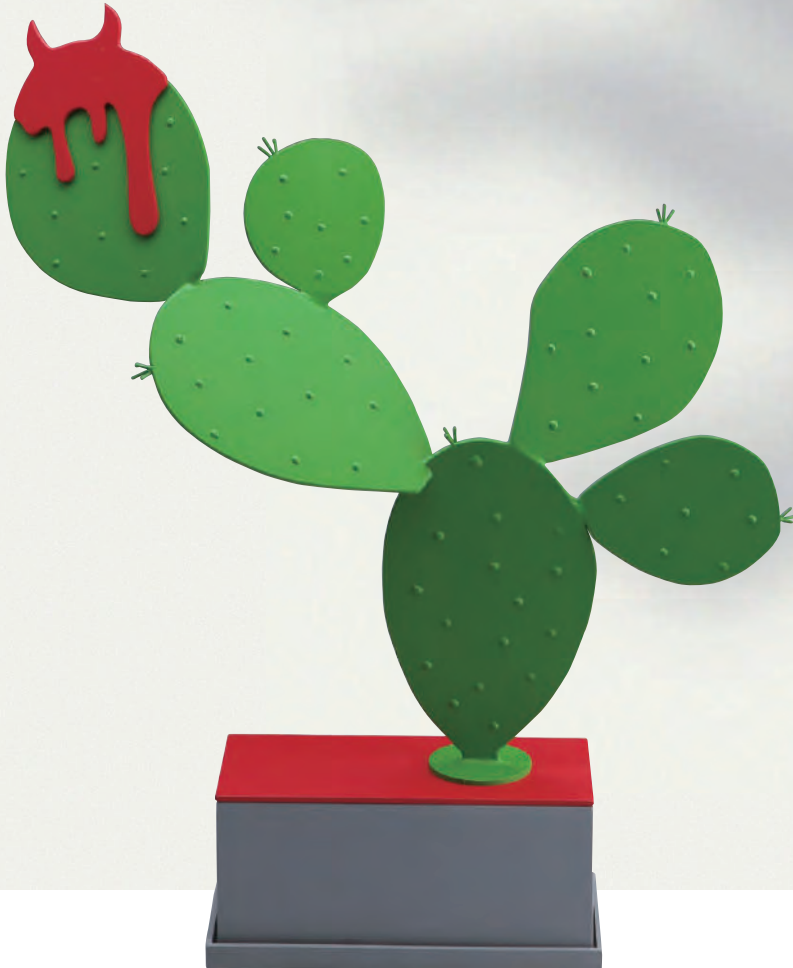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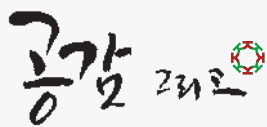
공감 그리드

문화예술정보지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9 **Winter** 2020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9 Winter 2020

통권 39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20. 12. 8.

담당부서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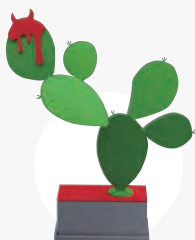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f.or.kr

편집위원 문진우 신용철 심창신 양화니 이연승 이재희 홍동식

편집기획 조형수 김지혜

디자인 및 제작 효민D&P 051-807-5100



홍종혁 - Defense mechanism
2016 25×15×40(cm) steel,
아크릴 도장

작가는 방어기제의 정의와 예술작품으로 발현된 내면의 심상을 알아보고, 표현하고자 하는 방어기제의 의미와 조각 작품으로 표출된 결과적인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금속작품을 중심으로 작가가 가지는 방어기제적 심상을 통한 변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어떻게 의미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의 내면성 방어기제를 표상으로 하는 작업을 통해 작품의 시각적 재현을 넘어선 주관적인 내면의 다양성을 끌어낼 무한한 가능성으로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04

여는글

뉴노멀시대 문화예술 경향에 대하여

공감의 뱃고동

08

Space

우리 춤과 함께 머무르는 곳, 고반재

14

Harmony

관계의 빈곤을
목공으로 치유하다

18

Issue

한 사람의 혁명

22

People

글 쓰고 책 만드는
1인분의 삶, 이슬기



공감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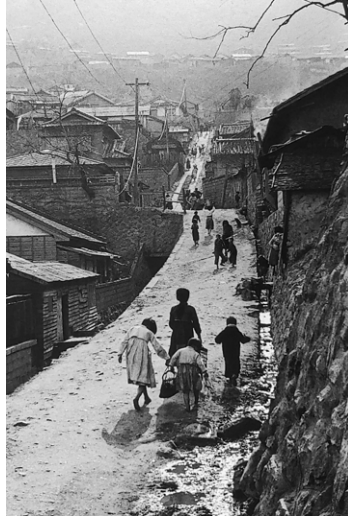
30

작은 영화제가 필요한 시대
051영화제의 의미

B-Side

38

버티컬 댄스(Vertical Dance)
현실을 위한 대지(大地)의 춤



돌아와요 부산향애

46

니, 그거 아냐?
예술은 어디에나 있다

50

누꼬?
생활주의 리얼리즘
부산 1세대 사진가 정인성

56

거기봤나?
영도 해돋이 마을



그리고 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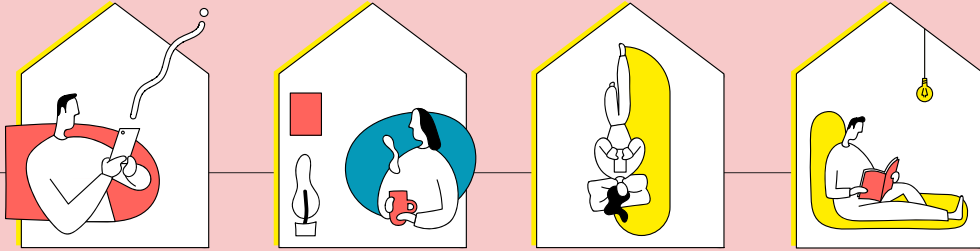
64

듣기
비대면 시대,
변화 속 문화예술

구포시장을 떠나
영도다리를 건너온 청년 작가들

70

말하기
그럼에도,
예술은 멈출 수 없다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미증유의 혼란에 빠졌다.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제 위기,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속에서 수개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뉴노멀시대 문화예술 경향에 대하여

글: 심창신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감독, 본지 편집위원

지역 문화예술 시설 존재론적 위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그 놀라운 전파력과 치사율 때문이다. 지난 11월 1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 4,600만 명, 사망자 120만 명에 이르고 국내기준으로 확진자 2만 6,000명, 사망자 460명이다. 신종 전염병(Epidemic)이 두 대륙 이상 전 세계에 번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팬데믹(Pandemic) 상황이다. 이 팬데믹은 쓰나미처럼 한순간에 전 세계를 뒤흔들어 여행을 방해하고, 지역 사회를 차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고, 경제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농축산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외식업체 600곳 중 95.2%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예술계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분야 중 하나이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KOPIS, 집계기준 2020.1.20~8.17)에 의하면 콘서트 포함한 전체 공연시장의 피해액은 2,457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콘서트를 제외한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장르 등 순수예술 분야의 피해액은 1,135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수치화되지 않은 피해가 많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와 코피스에 잡히지 않는 지방의 미등록 시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미술관·공연장 등 각종 문화예술 시설들이 문을 닫는 상황은 예술이 존재론적 위협을 받고 있는 듯하다.

뉴노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강세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시스템을 모조리 바꾸고 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대처할 틈도 없이 바꾸고 있다. 노동과 교육 그리고 의료·소비·문화·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기존의 관행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세상이 나뉘는 말까지 나온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다.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19의 경험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변화했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곧 맞이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라고 한다. '뉴노멀'은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뜻하는 말이다. 2008년에 세계 최대의 채권펀드인 핼코의 최고 경영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El Erian)이 자신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When Markets Collide)'에 언급하면서 널리 알려진 용어이다. 아직은 학술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기존 이론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충분히 수용해낼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뉴노멀은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대안이자 새로운 삶의 양식을 전망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온라인의 강세이다. 대면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다.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의 영향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동·교육에 이어 소비마저 온라인으로 급속히 넘어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4조 7,20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0.7% 증가하였고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9조 5,332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0.9% 증가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뉴노멀에 적응해야 하는 속제는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대면이 기본인 문화예술계의 경우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뉴노멀시대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는 먼저 온라인 공연시장의 변화이다. 뉴욕과 유럽의 극장들이 문을 닫은 이후 온라인 공연 영상을 내내 상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국립극장의 NT LIVE, 뉴욕 메트로페라 극장에서 온라인 상영 스케줄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호응도 좋으며 영상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온라인 공연으로 공공문화시설인 세종문화회관의 '힘내라 콘서트', 부산문화회관의 '배시시콘서트' 등이 상영되었다.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도 온라인 공연

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온라인 공연의 가장 큰 무기는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문화 민주주의적 측면에서는 매우 유효한 방법이다. 그러나 부정적 의견도 많다.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는 영상이다. 조명이나 음악, 화면의 편집 등과 관련하여 영상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 외에도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하기 위해 플랫폼 구축, 수익창출, 저작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하며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뉴노멀시대 문화예술 전시·공연 해법

마지막으로 뉴노멀시대의 속명적 대면 서비스인 문화예술 작품의 제작과 공연 경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견해본다. 세계적 모범인 K방역 시스템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화예술 작품 제작과 공연이 계속될 것이다. 작품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다수의 관객을 동원하기보다는 소규모의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작품으로 제작 경향이 이동할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장시간보다는 단시간의 작품, 공간적으로 실내보다는 실외의 공간에서, 집중보다는 분산의 작품이 진행될 것이다. 올해 춘천마임축제에서 진행한 '100신 프로젝트'가 좋은 사례로 남는다. 기존에 한 공간에서 벌어지던 공연, 전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100개의 공간(scene)으로 분산해 진행한 것이다. 구글의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의 공원시설 이용률이 36%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부산 시민공원을 뉴노멀시대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각광 받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지금껏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서툴게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때로는 견디며, 한편으로는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 좌충우돌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혼란과 코로나블루를 유발시키고 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는 문화예술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시킨다. 문화예술은 좋은 시절에만 소비하는 사치품이 아니다. 문화예술은 웃음과 감동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을 생성시키는 정신건강의 필수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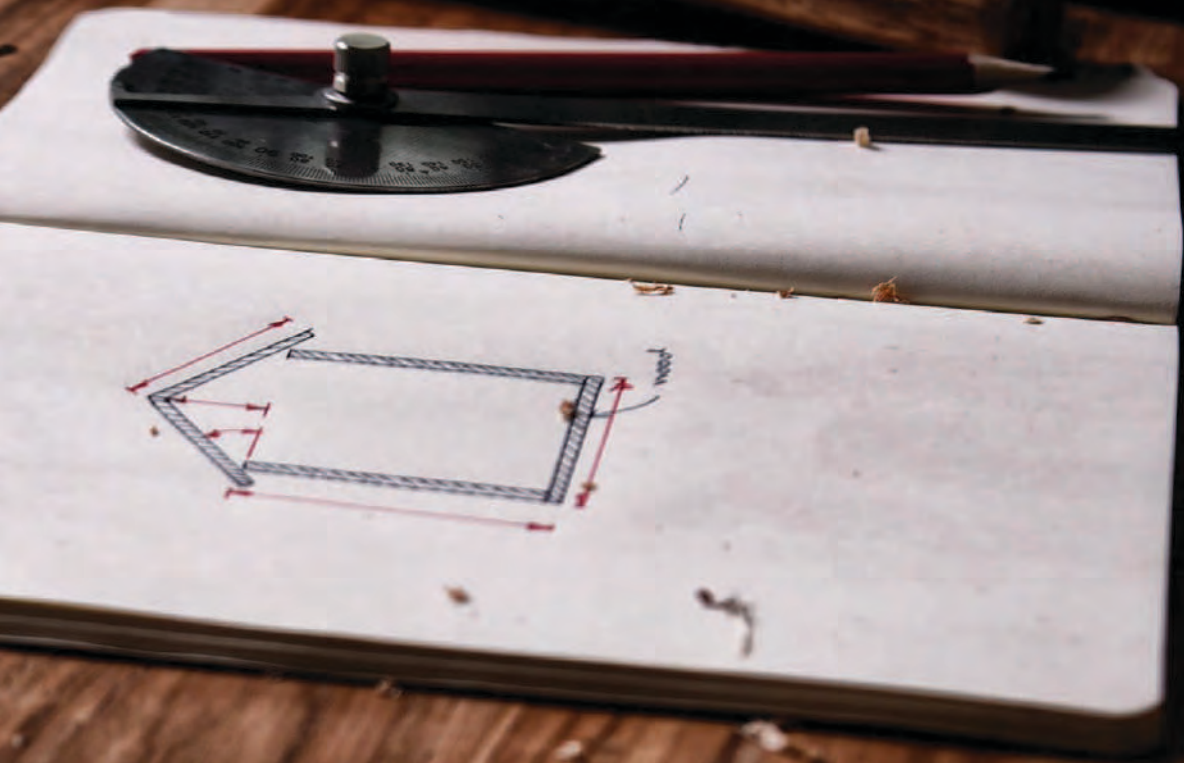
공감의 벋고동

008 Space | 우리 춤과 함께 머무르는 곳,
고반재

014 Harmony | 관계의 빈곤을
목공으로 치유하다

018 Issue | 한 사람의 혁명

022 People | 글 쓰고 책 만드는
1인분의 삶, 이슬기



우리 춤과 함께
머무르는 곳,

考槃澗

고반재

글. 이연승 세이브트리 문화기획팀장, 본지 편집위원







» 고반재 입구



» 무용실 강습 장면을 통유리를 통해 볼 수 있다

고반재는 기장군 석산리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보유자인 엄옥자 전 부산대 교수가 정년퇴임 후 딸 변지연(댄스컴퍼니 미르 예술감독), 사위 박성호(박성호무용단 예술감독)와 함께 우리 춤 계승을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옛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한 고반재는 사무동으로 쓰던 곳에는 공용 공간과 게스트하우스를, 천고가 높은 창고동은 무용실로 사용하고 있다.

후학양성의 공간

필자가 들렀던 날의 고반재를 떠올려본다. 담장이 없는 마당 한편에 작은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건물의 생김새를 살피느라 한참 주변을 서성여도 마을사람 어느 누구하나 나를 의심스럽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어디서 나타났는지 고양이들이 사뿐사뿐 내 뒤를 캐고 있었다. 안에 들어가자 떠들썩한 손님맛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어린 애제자가 타준 커피가 맛이 없어서 더욱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인터뷰는 짧았지만 건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간을 둘러볼 때도 혼자여서 고마웠다. 무용실을 살펴볼 땐 큰 스승님이 묵묵히 제자의 춤에 장구 장단을 맞춰주고 있었던 것 같다. 되게 어색했지만 편안한 마음이 드는 곳이었다.

<시경, 詩經> 위풍(衛風) 고반(考槃)편 집주에 “고(考)는 이룬다는 뜻이고, 반(槃)은 머뭇거리 멀리 떠나지 않는 모양이니 은거할 집을 이룬다는 말이다(考成也 槃盤桓之意 言成其隱處之室也, 한국고전용어사전)”라고 한다. ‘재’를 ‘집 재(齋)’가 아닌 ‘맑을 재(澗)’로 쓴 것은 고반 중에 맑은 제자들을 양성하겠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보였다.



» 우리 춤 체험 레지던스로 운영되고 있는 고반재

우리 춤 체험 레지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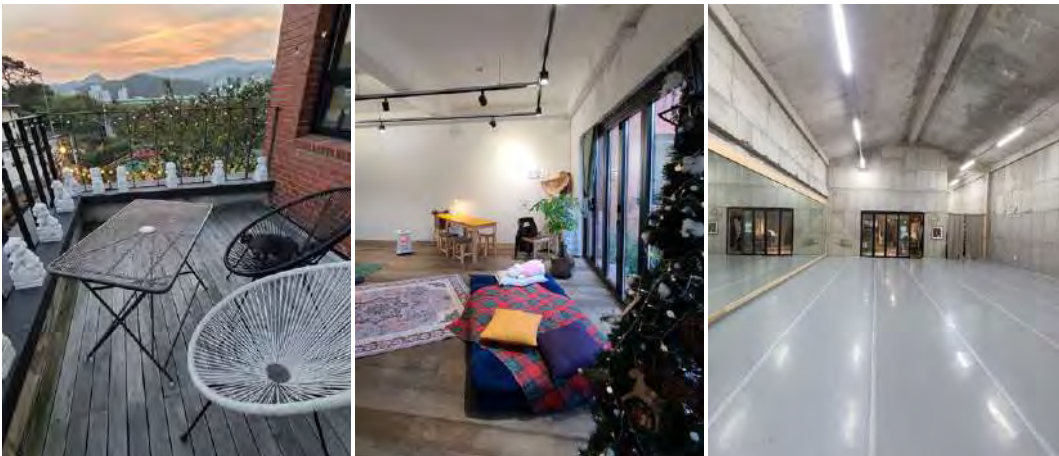
고반재는 현재 우리 춤 체험 레지던스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이 대중들과 만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술가의 고상한 가치관과 대중들의 외면이 너무나 찰떡궁합이라서 유연이 아니고서야 만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더욱 설자리가 제한적인 전통예술은 박물관에 들어가기 일보직전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의 문화는 더욱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반재의 레지던스 운영은 그런 면에서 적합한 한 수를 두고 있다. 도심에서는 조금 멀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송정해수욕장과 동부산관광단지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조용한 숙소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적합하다. 무용실의 강습이나 연습하는 모습을 통유리를 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해 우리 춤의 아름다움과 정진 과정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도 제공한다. 고즈넉한 마당을 지나 안에 들어서면 넓게 트인 1층에 공용공간이 있고 왼편 2층에 숙소, 오른쪽에 무용실로 통하는 길이 있다. 넓은 공용공간은 취사가 가능하고 세미나, 워크숍 등을 할 수 있다. 숙소는 16명까지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넓기 때문에 행사차 각 지역에서 온 지인들과 지내기에 손색이 없어보였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아름답고 조용했다. 천고가 높은 무용실도 대관을 통해 각종 행사나 작은 공연을 해내기에 충분해 보였다. 창고로 썼던 건물이어서인지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문을 통해 물품을 반입할 수도 있었다. 요즘에는 스튜디오로 활용한 언택트 콘텐츠를 만들려는 문화-예술인들의 문의로도 많다고 한다.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꾀해야 할 때에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한 곳이다.

춤 커뮤니티와 공간 공유

2019년 7월 문을 연 고반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승전무 부산지부와 원향춤보존회 전수관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후학양성뿐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도 꾸준히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부터 계획했던 ‘우리 춤 페스티벌’을 올해 선보이진 못했지만 변지연 예술감독은 “춤이 꼭 추어야만 춤인 건 아닌 것 같다는 건방진 생각으로 새로운 삶과 함께 살아봄직하다”며 공연이 아니어도 대중에 가깝게 다가가고, 지역의 변화에도 맞추어가며 우리 춤 알리기를 해나가고 싶다 한다.

예술행정이나 예술가에 기댄 플랫폼이 아닌 개인의 취향을 아껴주는 플랫폼이 역할을 할 때 문화의 향유와 역량은 강화된다. 일방적 공연 공급이 아닌 찾아오게 하는 방법부터 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실연 예술인 공연이 점차 온라인 미디어 매체로 흡수되어 가고 있는 요즘 고반재는 차별화된 상호교감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춤 커뮤니티와 공간 공유를 통해 머물러 가는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매개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춤은 몸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하는 예술의 한 종류에 머물지 않는다. 개인의 언어적 표현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살아 있는 움직임을 매체로 한 상징이란 점에서 생명성이 강하다. 필자의 어떻게 지냈냐는 물음에 “가끔 찾아오는 나비와 새들과 길고양이와 친구처럼 지낸다”는 변지연 예술감독의 말에서 그런 맑은 생명력이 느껴졌다. 고반재는 그렇게 춤을 추지 않아도 춤추는 몸에 기댈 수 있게 사람들을 가득 품어줄 요량인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춤출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이다.



» 고반재 내부시설 전경



📍 고반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석산길 39-5 📞 대관 문의 0507-1338-9652 🏠 에어비앤비(airbnb) 예약 <https://abnb.me/Gww13Qpzbbb>

관계의 빈곤을 목공으로 치유하다

글. 안중돈 나숨협동조합 대표

치유목공 나숨협동조합의 '나숨'은 '낮게 한다'의 경상도말 '나순다'의 뜻과 스스로의 숨결을 돌아본다는 '나의 숨결', 나무를 다듬으며 '나무의 숨결을 느낀다'는 의미가 있다. 나숨이 바라본 이 시대 우리의 고민은 관계를 깨우는 목공방,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목공방, 삶과 자기노동에서 소외되지 않기, 스스로 만들고 살아가기 등의 실천으로 관계의 빈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나숨은 목공방을 중심으로 목수, 노동인권강사, 인형극단 단장, 장례지도사, 사회복지사, 시인, 밥차봉사자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색깔의 활동을 하고 있다.

치유와 목공을 접목한 활동

쪽방 주민 7~8명과 치유목공을 시작했다. 보통 공방이라면 몸만 와서 공방에서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공방의 자재와 장비를 이용해 처음에는 간단한 공간박스 만들기부터 시작해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각자 필요한 것을 그려오라고 했다. 스스로의 필요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이 약통이었다. '약통'이란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는 방바닥이나 선반 등에 널브러진 약봉지, 허약해진 몸, 고독 등이었다. 우리가 좋아하는 나무, 우리가 가진 기술이 이분들에게 '만드는 기능과 나무상자'로만 남지 않고 치유의 수단이 되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치유와 목공의 만남을 이끌어내고 있다.

일인용 밥상을 1+1로 만들어 익명의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기로 한 때는 수혜자이기에 하던 분들이 나눔의 기쁨에 엄청 뿌듯해 하던 기억도 난다. 이런 프로그램을 계기로 고독사, 무연고자 공영장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쪽방 주민 당사자분들과 무연고자 장례를 같이 치루기도 하였으며, 고독사, 무연고자 공영장례를 고민하는 장례사업부가 나눔협동조합의 한 사업부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지평장애인자립센터 회원들과는 지속적인 치유목공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목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야외공간이나 경치 좋은 곳으로 나가 야외 치유목공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마산 조각공원, 회동동 황토 흙 맨발걷기는 가장 인기 있는 야외수업이다.



» 치유목공수업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올해 부산문화재단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석 달여간 치유목공수업을 진행했으며, 도마수업, 일인용 밥상, 스스로 말하게 하라, 옷칠 젓가락 만들기 등을 하며 공방에 오는 날을 기다리는 이들과 전체 프로그램이 마치는 것을 아쉬워하며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스스로 말하게 하라’를 하며 형제복지원에서 당한 서러움을 토해내는 이들과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감싸주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치유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젓가락 만들기’에서는 나무에 자신의 상처와 세상에 대한 외침을 적은 뒤, 한 조각 한 조각 깎아내어 그것들을 털어버리는 과정을 보며 형제복지원 사건이 올바르게 처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공감하기도 했다.

도시재생지역의 빈집회춘프로젝트 집수리교육

영도 봉산마을의 ‘빈집 줄게 살러 올래’ 공모로 빈집을 고쳐 입주하게 된 8팀을 대상으로 디자인, 목공, 도장, 전기, 타일, 벽지 장판을 실습하는 집수리교육을 진행하였다. 도자기 굽는 목금토와 봉산흙쟁이, 영화에 나오는 음식을 만드는 식담 주디, 꽃차를 나누는 봉산캠퍼스, 건축교육과 수직 정원을 만드는 알로하그린, 독특한 칵테일 바를 운영하는 청마가옥, 각각 현대 우든 보트와 전통한선을 만드는 돛앤돛, 나무배의 꿈이라는 8가지 색깔의 입주민들과 ‘빈집회춘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집수리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빈집 줄게 살러 올래’ 사업을 통해 공·폐가를 문화·체험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영도구가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대상 수상을 하여 더욱 뜻 깊었다. 이 프로그램은 나숨의 프로젝트팀 ‘나무배의 꿈’이 영도 적산가옥에서 진행 중이다.



» 치유목공수업

나눔의 프로젝트팀 '나무배의 꿈'

부산이 바다에 접해 있지만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바다문화를 즐기고 있는나?'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답을 할 것이다. 북항 재개발이 부산 앞바다를 부산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1934년 일제 강점기 영도다리가 들리고 황포돛대가 지나가는 모습의 사진을 보며 북항과 영도 사이의 바다에 우리 옛 배들이 돛을 달고 관광객들을 태우고 떠다닌다면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부산만의 명물 관광자원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런 꿈으로 '나무배의 꿈' 프로젝트를 만들며 우리 전통 배에 대한 연구와 작업을 시작하고, 부산에 남아있는 전통 배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한선투어(김창명 한선 문화재장인, 안용복 도일선, 조선통신사선, 화명 어촌전시관)'를 1년간 진행하였다.

돌아보면 쪽방 주민, 장애인자립센터, 일반인과의 치유목공수업, 장례사업부,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도시재생지역의 집수리교육, '나무배의 꿈' 프로젝트와 같이 다양한 일들을 나눔협동조합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작업이라는 공통의 관심과 다양한 영역의 구성원들의 열린 생각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결국 쪽방 주민, 장애인자립센터, 일반인과의 치유목공수업,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진행은 치유목공으로서 사람 간의 관계의 빈곤을 해결하려 한 것이라면, 장례사업부, 도시재생지역의 집수리교육, '나무배의 꿈' 프로젝트는 부산이라는 도시 회복을 위한 관계의 복원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 치유목공수업

한 사람의 혁명

글. 김종길 미술평론가

**코로나의 답답한 현실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위드코로나'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 삶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리라.**

나: 다섯 개의 열쇳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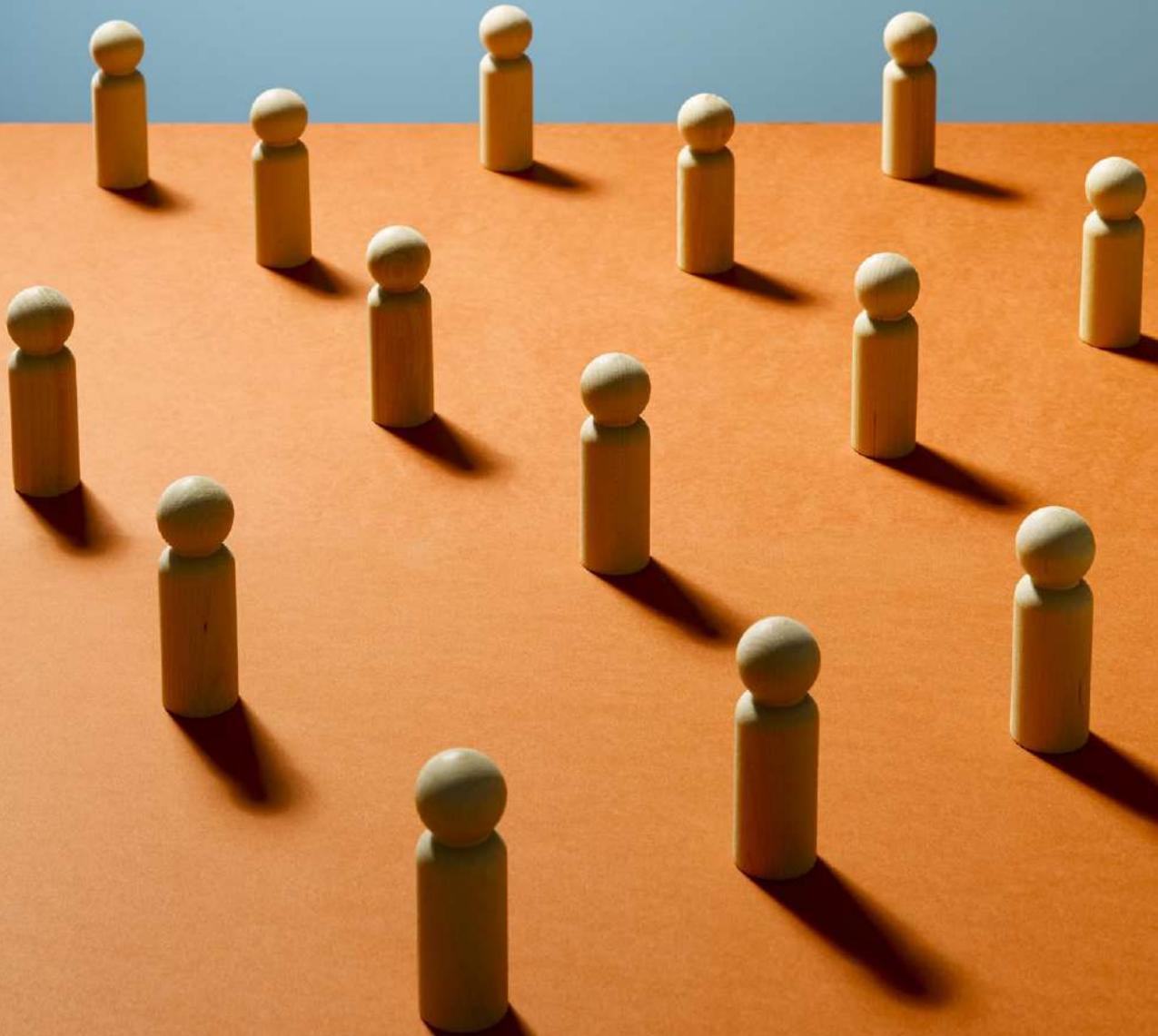
코로나가 창궐하자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중이라며 호들갑을 떨다. 그런데 그 말보다 마음에 와닿는 것은 “코로나19, 인간이 격리되자 지구는 되살아났다”는 어느 인터넷 신문의 헤드라인이다. 바이러스가 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사람은 사람 생각밖에 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연은 스스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의 시 ‘토양을 만들자(1932)’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1인 혁명을 명령합니다. 그것만이 실현 가능한 유일한 혁명입니다”라고 외쳤다. 그 외침이 혹 우리가 지금 새겨야 할 가장 큰 사자후가 아닐까? 나로부터의 혁명을 시작해야 하는 순간으로서.

아나키스트 운동가 애먼 헤나시는 이미 ‘한 사람의 혁명’을 주장하고 실천했었다.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변화를 먼저 시도했던 것이다. 한 사람의 혁명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최초의 씨앗일 테니까. 그래서 생각해 본다. 한 사람의 내부혁명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지금이 바로 그때라면 바로 시작해 보자.

‘나’의 내부혁명을 위해 새겨야 할 다섯 개의 열쇳말을 생각해 보았다. 주제는 ‘참나(眞我)’이다. 첫째, 신화다. 신화야말로 참나의 신령한 뿌리잖은가. 둘째, 영성이다. 영성은 참나(眞我)의 푸른 수액이다. 셋째, 역사다. 역사는 참나의 오래된 웅이에 다름 아니다. 넷째, 지혜다. 지혜는 참나의 흰 그늘이다. 다섯째, 공감이다. 공감은 참나의 이웃 둥지일 터. 이 다섯 가지는 서로 나뉘는 것이 아닐 것이며, 마치 한 그루의 큰 나무처럼 하나면서 전체일 것이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자.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
코로나 상황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신화 : 참나(眞我)의 신령한 뿌리

신화는 우리가 상실한 원문명의 가장 웅숭깊은 철학이요, 역사요, 사상이다. 신화는 “세계의 발생, 신들의 계통, 세계의 구조, 인간의 발생, 세계의 종말” 등을 주제로 하며, 사상을 개념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시적(詩的)인 이야기에 의해서 형상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성한 서술(敍述)’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에 관한 신성한 전승 설화, 즉 여러 현실적 존재인 우주, 인간, 동식물, 특성의 인간행위, 자연현상, 제도 등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들려준다.

신화는 ‘참나’의 신령한 뿌리다. 문화예술은 문화와 예술을 통한 ‘참나’의 재인식과 그런 성찰에 있다. 그리고 그 성찰적 사유의 심오한 후경에 신화가 존재한다. 신화의 뿌리는 곧 참나의 뿌리이니 반드시 우리는 신화와 신화소의 맥점을 찾아야 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영성 : 참나의 푸른 수액

문화예술의 형식주의가 낳은 가장 큰 폐단은 영성은커녕 인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문화예술은 ‘사람다움’의 실현을 위해 기획된다. 그 ‘다움’은 잘 성장한 나무들의 품격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문화예술은 영성의 ‘씨알트기’를 통한 인성의 완성에 그 핵심과제를 두어야 한다.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준비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라면, 문화예술은 학교와 사회가 결코 성취하지 못한 인문학적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기획하는 자발적 윤리에 가깝다.

영성은 내 안에 잠자는 ‘참나’의 본질이다. 그것은 어두운 페르소나(Persona)일 때도 있으나 아브락사스(Abraxas)의 실체이기도 하다. 아브락사스는 참과 거짓, 선과 악 그리고 빛과 어둠 등 모든 양극적인 것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신성이다. 영성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이다.

역사 : 참나의 오래된 웅이

‘나의 역사는 고사하고 아버지의 역사, 어머니의 역사,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사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에 이르면 우리는 거의 공백상태다. 내 역사의 가장 큰 웅이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은 그런 잃어버린 ‘나의 역사를 체현하고 기억하기 위해 기획될 필요가 있다. 나는 다시 너의 역사로, 우리의 역사로 넓어진다. 우리는 여러 문명의 역사, 국가의 역사는 기억하지만 지역의 역사, 가족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나’라는 주체에 대한 인식 없이 대타자에 대한 정체성만을 부르짖는 형국이 우리의 현실이다.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한 ‘인정 투쟁’에 나서야 한다. 즉 나는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나를 둘러싼 세계의 역사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와 가족, 나와 지역사회, 나와 조국, 나와 문명, 나와 세계, 나와 우주로의 끝없는 확장선은 끊임없이 ‘나’를 묻는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

지혜 : 참나의 흰 그늘

지혜는 울음과 웃음을 구분하지 않는다. 슬픔과 기쁨도 구분하지 않는다. 지혜는 지식의 총만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않는 명석함에서 온다. 우리는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웃는다. 무엇이 슬프고 기쁜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슬픔이 한이 없다가도 기쁨이 오면 금방 웃는다. 완전한 빛도 완전한 어둠도 없다. 빛이 강할수록 어둠도 강하다. 우리는 그 어둠에서 흰 그늘을 엿본다. 지혜는 그런 것이다.

참나의 내부에는 그런 감정의 빛 그늘이 가득하다. 그것들이 온전할 때 몸은 지혜로워진다. 그것들이 몸 안에서 ‘신명(神明)’을 이룰 때 지혜가 총만해진다. 만약 우리 몸의 내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지혜는 독선이 된다. 그래서 지혜는 시인의 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문화예술은 시를 법문으로 하여야만 한다. 문

화예술의 시작과 끝에 늘 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공감 : 참나의 이웃 등지

신화, 영성, 역사, 지혜가 있어도 공감하지 못하면 헛것이다. 다섯 개 철학적 키워드의 융합이 아니라 신화의 공감, 영성의 공감, 역사의 공감, 지혜의 공감처럼 각 개별적 키워드에 공감이 결합되어야 하며, 그것들이 크게 모여 공감의 연대로 이어져야 한다. 마치 큰 나무가 바람, 구름, 새, 곤충, 짐승들과 같은 온갖 자연의 생명을 그 안에 품듯이 문화예술도 그와 같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에서 인간은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말했다.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서 공감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서적 상태로 들어가 이를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며, 수동적인 입장과 달리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난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사회구조는 2백 년 가까이 변함없는 키워드였던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며, 그것은 사람들 간의 ‘공감’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다. 공감은 문화예술의 큰 울타리이다.

문화예술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상상의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베네딕트 앤더슨에 의하면, ‘상상의 공동체’는 특정한 시기에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된 역사적 공동체이다. 또한 그것은 사회적 실재로서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경험되는 시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인류학적 명제를 깔고 있다.

우리는 문화예술을 통해 ‘상상의 공동체’를 근대적 국가주의로부터 우주적 지구주의로 확장하는 꿈을 꿀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필연적으로 우리 밖의 ‘상상의 공동체’와 만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 코로나 상황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흔히 타인에게 하는 말로 나는 충분히 좋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내게 먼저 물었어야 한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고. 만약에 좋지 않아, 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의 말대로 용기를 내어 지금의 삶을 바꿔야만 한다.

글. 이윤기 사진. 김재경

글 쓰고
책 만드는

1인분의 삶,

이슬기

#1_ 혼자서도 잘해요

‘일 인분의 삶(빌리버튼)’을 펴낸 후 1인 출판사 <글이>를 운영하고 있다. 독립출판을 하게 된 계기는

뭔가 거창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중심은 글 위주이고, 에세이든 소설이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의 글을 책으로 만들고 싶었다. 올해 <글이>에서 첫 출판한 ‘그래봤자 꿀랑 어른(한주형)’과 단편집 ‘하지만, 그렇다 해도, 말하자면 도저히(우연)’가 있다. 작가 한 분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또 한 분은 ‘글 쓰고 춤추는 53세’ 작가이다. 두 분 다 전업 작가가 아닌 직장을 다니면서 책을 낸 분들이다. 솔직히 원고를 봤을 때 제가 만들고 싶은 책 위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금씩 <글이>만의 색깔을 보여줄 계획이다.

산문집 ‘일 인분의 삶’ 역시 디자인부터 출판까지 모두 혼자 이룬 결과물이다.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게 된 배경은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글을 써야겠다는 계획을 가졌고, 2018년부터 집필을 시작해 지난해 첫 책을 내게 됐다. 전국 동네서점에 입고되면서 운이 좋게도 그해에 경기 부천에 있는 독립서점 오키로북스(5kmbooks)에서 빌리버튼 출판사에 추천을 해줘 정식 출판을 하게 됐다. 출판사에서 내용이 좋다고, 잘 만들어서 더 많은 독자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로 독립서점, 또는 동네서점을 즐겨 찾는 것 같다. 그곳에서 발견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있다면

언젠가는 읽겠지, 하면서 평소에도 책 사는 걸 좋아한다.(웃음) 솔직한 개인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이곳(스테레오북스)처럼 음악에 관한 전문 서적이 많은, 각각의 장르가 있는 독립서점을 찾는 재미도 한몫 더한다. 그곳에서 발견한 책이라면 솔직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외국 에세이집 ‘오늘 날씨 슬픔과 현직 경찰이 직접 쓴 글로 ‘경찰관 속으로_언니에게 부치는 편지’가 있다. 이 책은 간략한 저자소개에도 큰 울림이 있다. “집에서 10분 거리 여중, 30분 거리 여고 졸업, 50분 거리 대학교 철학과 자퇴. 그리고 현재, 집에서 5분 거리 파출소에 출퇴근 중. 걸으면서 보도블록에 킁 때와 그 틈을 비집고 피어난 잡초를 보며 이 글을 썼다.(저자 원도)”

독립서점이 안고 있는 고민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도서정가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독립서점에는 정말 다양한 책들이 나오는데, 다양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 작은 서점들의 설자리며, 소수의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기회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이런 작은 서점들이 많이 생겨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거점 공간이 늘어난다면 더욱이 다양한 도서 선택의 기회와 좋은 작가군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 설거지는 밥 혹은 요리를 해 먹고 난 후
그릇을 씻어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릇이 너무 많이 쌓여
미관상 보기 싫은 마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는 오랜만에 집에서 밥을 먹을 결심을 했는데
그릇이 없을 때 하는 것이다.

- p.183, 일 인분의 삶 중 「설거지」 ”



#2_ 슬기로운 글쓰기 생활

‘일 인분의 삶’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문장과 특별히 기억나는 독자들의 반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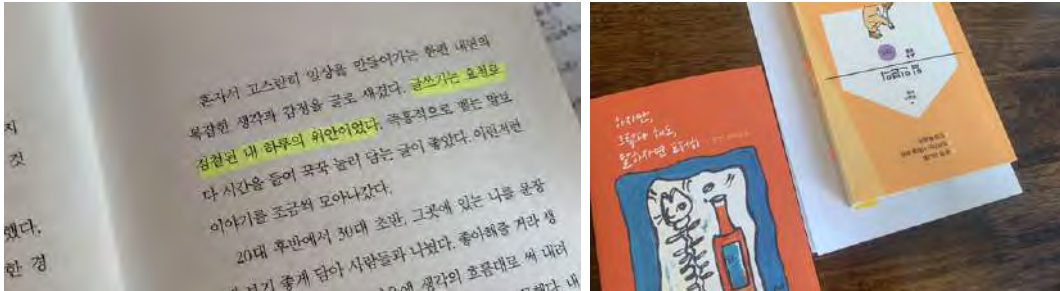
“(포스트잇 꼬리표가 주렁주렁 매달린 작가의 견본 도서를 꺼내어)글쓰기는 요즘로 점철된 내 하루의 위안이었다.” 즉흥적으로 뱉는 말보다 시간을 들여 꼭꼭 눌러 담는 글이 좋았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표현이다. 독자들이 제 글을 보고 ‘내가 쓴 글인 줄 알았다’며 크게 공감할 때가 가장 좋았다.

글쓰기의 소재, 또는 모티브는 주로 어디서 얻는지, 특별한 글쓰기 단계가 있다면

사적인 감정에 대해 남들이 보면 해독 불가능한 글들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진짜 책을 만들기 위한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했고, 글쓰기모임을 하면서도 많은 도움을 얻었다. 평소에는 꾸준히 글을 쓰는 타입이 아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핸드폰 메모장에 남겨두고 집에 가서 정리를 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고양이와 살면서 ‘1.5 인분의 삶’을 준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쓰기의 교본처럼 여기는 도서 리스트, 또는 닦고 싶은 작가는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등 수많은 저서를 펴낸 고미숙 작가와 최근에는 ‘글쓰기의 최전선’, ‘쓰기의 말들’의 저자 은유 작가를 꼽을 수 있다. 글쓰기 모임 때 누군가 추천해줬던 책인데, 같은 에세이라도 다른 지점이 보였다. 따뜻한 문장과, 사람에 대한 인기가 좋았다. 꼭 닦고 싶은 작가이다.



#3_ 독립, 앞으로도 쪽

독립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일 인분의 삶' 이후의 변화된 일상은

올해로 8년차가 됐다. 전세 대출을 받아 전월세로 살고 있고, '일 인분의 삶'에는 없었던 글이, 달이라는 반려묘와 함께 지내고 있다. 연차가 쌓이다보니 일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고,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일하다보니 초반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된 편이다. 특히 혼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다. 밤에 실컷 맥주를 마셔도 되고. (웃음) 단점이라면 야식과 편의점을 많이 찾게 된다. 외로움이랄까, 허기로 채우는 것 같다.

'일 인분의 삶'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현상과도 맞닿은 지점이 있다.

독립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우선 독립 그 자체로 응원을 드리고 싶다. 용기가 없다면 마음에 두더라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독립이다. 항상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지금의 내가 좋은 지, 안 좋은 지. 만약에 좋지 않아, 라는 답이 나온다면 용기를 내어 지금의 삶을 바꿔야만 한다. 독립을 하면서 항상 모든 결정은 나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나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 나름의 자유로움 속에서도 자기중심을 잡아가는 삶을 꾸려야 한다.

'1.5인분의 삶'처럼 시리즈 형태로 출간되어도 흥미로울 것 같다. 차기작 계획은

반려묘 글이와 달이를 소재로 한 이야기도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글이>를 운영하면서 실제 경험담 위주로 출판사에 대한 이야기도 브런치에 꾸준히 올리고 있다. '일 인분의 출판사'로 하면 어떨까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웃음)



영감 리뷰

030

작은 영화제가 필요한 시대
051영화제의 의미



작은 영화제가 필요한 시대 051영화제의 의미

글. 박지연 영화평론가
사진.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영화의 역사는 영화관의 역사와 동일하다. 영사기를 발명한 날도, 촬영을 시작한 날도 아닌, 1895년 12월 28일 그랑카페에서 '관객이 모여 영화를 본 날'이 영화의 시작이다. 그렇다. 영화의 핵심은 동시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객과 함께 '지금, 여기'이다.

언제까지 대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불현듯 우리 곁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여름이 시작되면 떠날 거라는 기대는 올해 말이면 해결될 거라는 희망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내년도 지금과 같은 상황일거라는 전망이 시작되었다. 밀접한 환경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고, 언택트라는 생소한 단어를 배우며 비대면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인간이 언제까지 대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언택트의 빈 공간을 빠르게 언택트라는 이름이 메워나갔다. 온라인 회의, 온라인 수업, 온라인 차례, 온라인 술자리까지. 이쯤 되자 이제 영화제까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플랫폼을 마련하고 관객들은 상영관으로 들어가는 티켓 대신 접속하기 위한 비번을 받아들였다. 온라인 상영이 한정적 제약 속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제 디지털 변혁의 시대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도 시작되었다. 온라인 영화제가 굳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른 현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영화가 디지털화되고 넷플릭스나 여러 OTT 플랫폼 등의 디지털로 소비되는 것이 주가 되면서 영화제 또한 온라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수순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돌아갈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겪은 팬데믹의 시간을 지우고 바로 2019년 겨울의 그때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몸으로 익혔기 때문이다. 온라인이 국가 간의 벽, 거리의 벽, 접근의 벽을 무너뜨리고 문화 수용의 민주화라는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장점도 알아버렸다. 초창기의 온라인, 가상현실의 불편함은 조만간 상상도 못할 발전을 해내면서 우리가 돌아갈 언택트의 일상은 훨씬 자연스럽게 발달된 가운데 그것을 영위할 삶의 모습일거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기억해보자. 영화의 역사가 그 기원을 에디슨의 상영 방식이 아닌 루미에르의 영화 상영 방식을 선택했음을. 에디슨이 루미에르보다도 일 년이나 빨랐음에도 말이다. 다시 말하면 영화의 역사는 영화관의 역사와 동일하다. 영사기를 발명한 날도, 촬영을 시작한 날도 아닌, 1895년 12월 28일 그랑카페에서 '관객이 모여 영화를 본 날'이 영화의 시작이다. 그렇다. 영화의 핵심은 동시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객과 함께 '지금, 여기'이다. 영화가 사회의 반영이고 사회의 반영이 영화라고 할 때 관객들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동시에 감동을 같이 누리고 사고들을 확산시켜 나간다. 영화의 길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가능하기도 예측하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 그래도 영화관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작은 기대를 해보는 건 바로 관객이 함께 만들고 재생산하는 영화 상영의 속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비대면이 영화 소비자에게는 일정 편하고 효율적인 방식임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적응하고 머물지 말았으면 한다. 아무리 비대면을 강조한다해도, 비대면이 우리의 생물적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라 해도,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양쪽의 모습, 온라인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체온을 느끼며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명제는 영화제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불씨를 지핀다.



» 051영화제 시상식 및 시상회

작은 공동체로서의 영화제를 지향하며

영화제는 '만남'이 필수 전제조건이다. 영화를 통한 축제에서 '필름으로서 영화'만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각각의 영화제에 맞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이것들은 서로 교류되고 융합되고 전파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팬데믹이 코로나19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비관과 함께, 문화의 다양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지금 새로운 비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팬데믹이 밀집된 거대사회의 생태파괴와 기후위기가 그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 결국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작은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대규모 생산 산업화의 밀집도 높은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사회의 모습은 작은 공동체, 멀티플렉스 대신 동네 극장, 동네 미술관, 작은 도서관, 상시적인 공연과 토론이 가능한 동네 카페, 근거리 농산물의 소비를 위한 동네 가게 등이다. 여기에 영화제 또한 작은 영화제를 통해서 공감과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문화적, 사회적 소외를 줄이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국제영화제는 자신만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모든 영화제가 국제영화제일 수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작은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 영화제가 문화 공유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2020년 우리나라에는 대략 1,700개의 영화제가 열리고 있다고 한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 규모와 존재감에서 명실상부한 국제영화제로서 역할들을 해내는 영화

제들이 있다. 여기서 부산, 전주, 서울은 지역적 특성을 일컫는 단어는 아니다. 이들 영화제는 탈경계의 정체성으로 영화의 국제 시장에서 점유를 시도하며 새로운 영화 인물을 발굴하고 소개하며 영화, 사상, 기술, 자본의 큰 판이 형성된다. 하지만 모든 영화제가 국제영화제이고 규모가 거대성이 성공한 영화제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 대규모 국제영화제의 역할과 작은 영화제의 역할은 탄생부터가 다르게 부여된다. 작은 영화제가 열심히 해서 능력을 쌓아 국제영화제로 성장 변모해나가는 징검다리 과정에 놓이는 게 아닌 것이다. 애당초 산업으로서의 영화제나 지역홍보의 이용체로서의 영화제가 아닌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와 색깔을 가진 작은 영화제. 지역공동체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영화제가 지금 팬데믹 이후 만남을 바탕으로 하는 영화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700개의 영화제 중에서 작은 영화제들이 탄생하고 이어지고 혹은 사라지는 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생기는 현상이 아닌, 탈 냉전기 이후 다양한 영화문화의 기획이 활성화된 결과물들이다. 즉 인구, 자본, 문화의 이동과 교류가 가속화되면서 문화 다양성에 입각한 다문화, 세분화된 감수성의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지역과 세대와 소통하고 감성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영화제의 성격은 결국 자신만의 고유한 주제전에 있다.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지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지역인들과 함께 재밌는 영화축제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문화 소비자에서 수용자를 넘어 생산자로

‘051영화제’는 사회복지의 발전과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나눔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만드는 작은 축제이다. 부산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전화번호인 ‘051’을 영화제 이름으로 내걸었다. 시민들이 복지에 관한 주제로 51초짜리 초단편 영상을 제작해 그것을 상영하는 형태로 지난해까지 이어왔다. 지역성과 그것을 영화의 형식으로 이어지게 하는 참신한 발상이다.

올해부터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는데, 시민들이 낸 한 장의 스토리를 전문 감독들이 이어받아 5분 1초짜리 영화로 현실화하는 방식이다. 이런 영화제 콘셉트는 매우 의미적이다.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상상력을 구체화하고 ‘영화’라는 현물로 존재하게 하는 것, 영화를 보는 사람에서 영화의 제작과정에 참여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영화 소비자에서 영화 생산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역거주자의 다양한 경험이 그 지역의 문화적 자양을 튼튼하게 한다. 문화를 삶의 권리로 인정할 때 문화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며 문화소비자와 문화생산자의 역할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24일 '제4회 051영화제' 시상식이 있었고 그 후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영화를 업로드해서 온라인으로 관람 가능하게 되었다. 세 편의 스토리가 각각의 영화감독을 만나 세 편의 영화로 탄생했다. 감독들은 원작자의 스토리를 재해석하며 자신만의 감성을 더해 이야기의 본질을 더욱더 잘 살려내고 있다. 양진석 원작의 <그들 각자의 바다, 우리 모두의 영화>는 스토리 한 장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운동화> 등으로 익히 알려진 김진태 감독은 대사나 감정의 과잉 없이 장애인의 정서를 시처럼 풀어내고 있다. 바닷가와 영화 속 인물, 영화관 속 인물들이 수수께끼처럼 반복되자 환상성이 증가되면서 시적인 정서를 형성한다.

지속적인 작은 만남의 장, 051영화제

시공간이 확대되는 순간 영화의 마법을 대하는 것 같다. 어쩌면 영화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때 우리가 얻고 싶은 답은 바로 이 순간을 보여줄 때가 아닐까.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넘나들며 작업을 하는 윤재호 감독의 <껌 파는 소년> 역시 그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물며 이야기의 초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최병덕 원작의 한 장 스토리에서 부산역에서 시작되는 소년과 남자의 이야기는 영화에서는 골목길을 걸어 다니는 복지사의 회고로 풀어낸다. 다큐멘터리의 담담한 내레이터 같기도, 극영화의 화자 같기도 한 이 슬픈 이야기는 마치 실제 그 일을 본 것처럼 사실성을 부여한다. 직접적인 사건과 시각이미지의 제공 대신 길에서 만난 사내의 목소리가, 한 공간에 앉은 두 사람의 대화가 조용히 우리를 영화 안으로 끌어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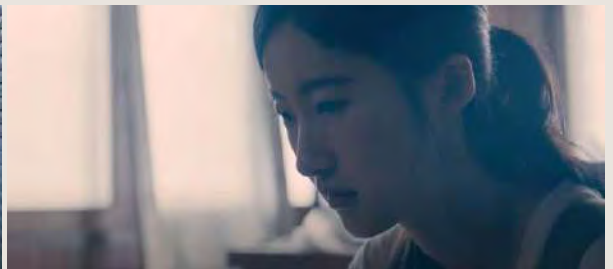
손우열 원작의 한 장 스토리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작품이 장희철 감독의 <의자하나>이다. <첫눈이 내렸으면>에서 보여준 다양한 장르의 예술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 작품에서도 충분히 녹여내고 있다. 갈등의 목표나 방식이 직접적이고 명징했던 한 장 스토리에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리고 유머까지 들어있지만 원본이 가지고 있던 우리 사회의 쓸쓸하고도 씩씩한 맛까지 잘 살려내고 있다.

051영화제가 보여준 방식과 작품들은 의미 있고 성과도 있는 좋은 사례이다. 작은 영화제는 소규모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담보해야 한다. 내용도 형식도 영화제의 제 색깔에 맞춰 개성 있고 특색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주체성에 걸맞은 행사들을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작은 영화제가 가야 할 여러 고개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거리두기, 비대면 등의 제약이 원인일거라 생각해보지만, 역시나 시상식에서의 시상함은 사뭇 아쉬움으로 남는다. 놀이 공간, 문화 연대의 장, 참여하는 축제로서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051영화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많은 작은 영화제가 갖고 있는 숙제의 한 부분이다. 코로나가 끝나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속적인 '만남'이라면 '051영화제'와 같은 작은 영화제가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 기대하는 역할은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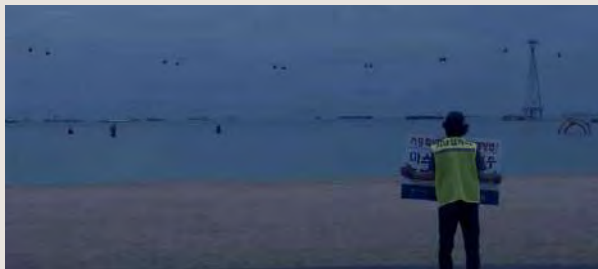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와 색깔을 가진 작은 영화제.
 지역공동체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영화제가
 지금 팬데믹 이후 만남을 바탕으로 하는 영화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양진석 원작 <그들 각자의 바다, 우리 모두의 영화>



» 윤재호 감독 <검 파는 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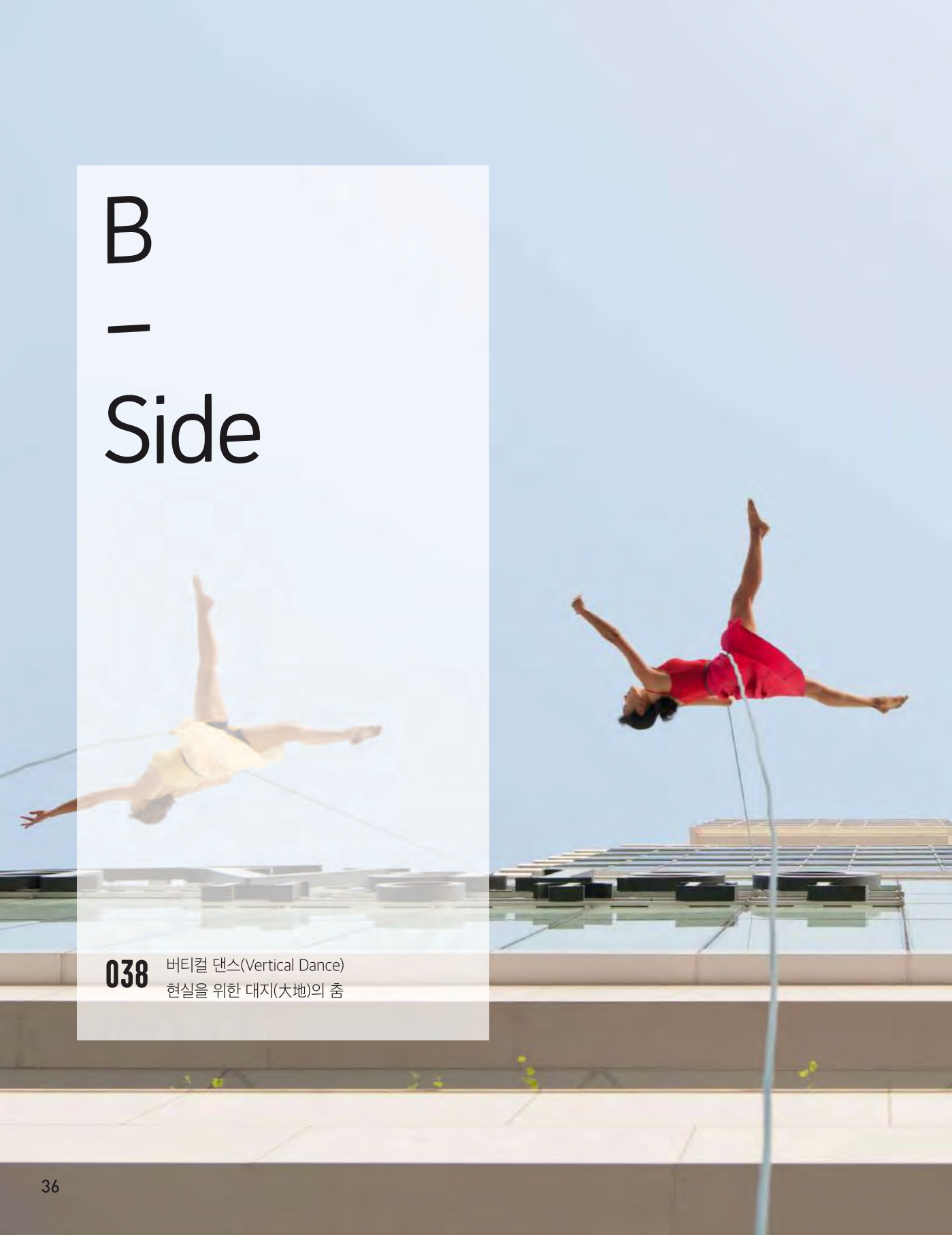


» 장희철 감독 <의자하나>

B - Side

038

버티컬 댄스(Vertical Dance)
현실을 위한 대지(大地)의 춤





2019년 11월 3일 영도 라발스 호텔에서 진행된 써드네이처(3rdNature)의 버티컬 댄스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안무 김동희) 공연 리뷰에서 필자는 “버티컬 댄스는 땅을 향해 내려오는 춤이다. 허공에 몸을 던지는 것은 초월예의 열망이리기보다 현실의 갑갑함을 잠시라도 털어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버티컬 댄스는 현실을 위한 대지의 춤이다. (중략) 허공에 뛰어들고서야 비로소 보이는 굳건한 대지. 구획된 일상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일탈을 꿈꿀 수 있는 것도 든든한 대지의 약속이 있어 가능하다”라고 버티컬 댄스의 내적 특성을 표현했다.

(국제신문 칼럼 '이상헌의 부산 춤 이야기 27')

버티컬 댄스

V e r t i c a l D a n c e

현실을 위한 대지(大地)의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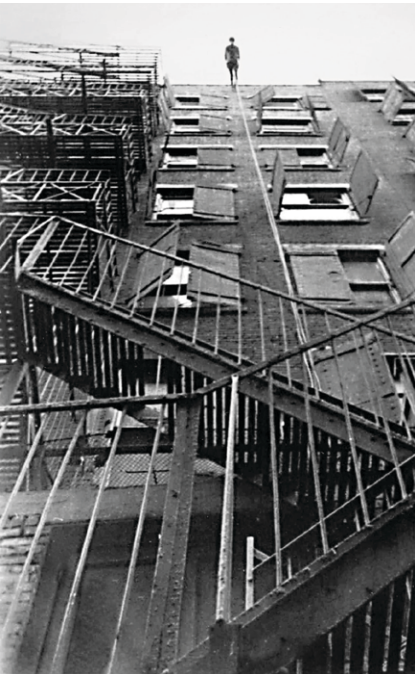
글. 이상헌 춤 비평가

2020 공연 영국 현지 라이브 중계

올해 공연은 워크숍까지 포함해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애초 계획대로 워크숍을 하거나 관객을 두고 공연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의 후속작인 <숨.sum:Breath>를 댄스 필름(dance film) 형식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강렬하고 비현실적인 공간감을 주는 버티컬 댄스를 현장에서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아쉬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24일 영국에서 라이브 중계한 램버트 댄스컴퍼니와 빔 반데키부스의 협업 작품 <내면으로부터(Draw From Within)>가 극장 관객의 시점을 배제한 영화적 구성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적절한 대안을 제안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숨.sum:Breath>가 한국형 댄스 필름의 전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영상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영국에서 라이브 중계한 램버트 댄스컴퍼니와 빔 반데키부스의 협업 작품



▶ 트리샤 브라운 - 건물 벽면을 내려오는 사람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Bilding)



▶ 씨드네이처의 버티컬 댄스 _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

수직면 무대에서 펼치는 버티컬 댄스

버티컬 댄스는 암벽 등반 장비를 착용하고 건축물 벽 등 수직면을 오르내리며 퍼포먼스를 펼치는 장소 특정적(site-specific) 공연 장르다. 버티컬 댄스는 에어리얼 댄스(aerial dance), 혹은 하네스 댄스(harness dance)라고도 부른다. 이들을 구별할 기준이 분명하지 않지만, 에어리얼 댄스가 바통에 매달려 무대의 상부 공간을 이용하는 데 비해 버티컬 댄스는 수직면을 하나의 '무대(dance floor)'로 인식한다.

버티컬 댄스의 시작은 분명하지 않다. 무용 예술 분야에서 최초의 버티컬 댄스 형식의 공연은 트리샤 브라운(Trisha Brown, 1936~2017)이 1970년 안무한 <빌딩 벽면을 걸어 내려오는 사람(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이다. 버티컬 댄스에 대한 학문적 정리가 여전히 미흡하지만, 이 작품을 버티컬 댄스의 첫 작품으로 꼽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작품은 몇 차례 재연했는데, 1970년 초연 영상과 2008년 재연 영상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¹⁾

무용의 신기원 '포스트모던 댄스'의 등장

트리샤 브라운은 활동 초기에 발레와 현대무용이 구축한 극장 공연의 관습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순수 움직임(pure movement)'을 추구하였다. <빌딩 벽면을 걸어 내려오는 사람>은 제목이

1) 초연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sKkBXZS1jHk>

재연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MpGsEOR9db0>





WORLD DANCE

› 씨드네이처의 버티컬 댄스 _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



» 씨드네이처의 버티컬 댄스_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

뜻하는 그대로 한 사람이 몸에 줄을 달고 뉴욕 소호의 한 건물 벽면을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작품으로 어떠한 의미 개입을 배제한 '순수 움직임'을 탐구한 실험이었다.

트리샤 브라운을 시작으로 서구 무용계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버티컬 댄스에 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일었다. 그 배경을 무용 예술 내부에서 살펴보면, 모던댄스의 전통과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흐름이 생기면서, 포스트모던 댄스가 등장한 것을 들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예술가의 변화하는 표현 욕구를 충족할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기술 발달이 영향을 주었다. 특히 암벽 등반이 취미 활동으로 대중화되면서 안전 장비가 발달하였고, '태양의 서커스' 같은 서사를 담은 서커스 극이 인기를 얻은 것 등이 무용 예술에서 버티컬 댄스의 위치를 재인식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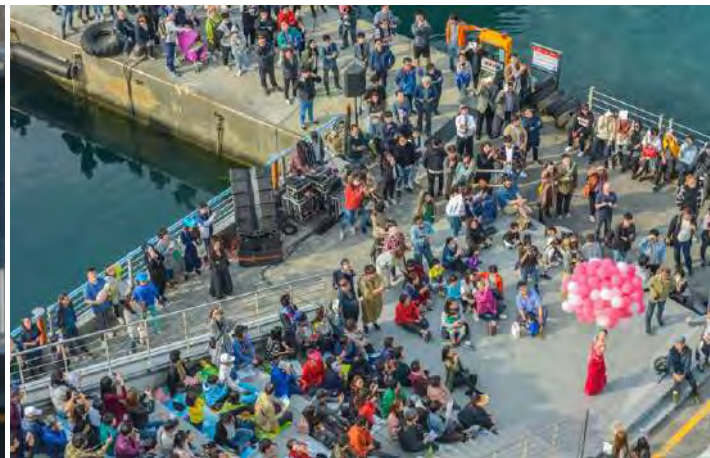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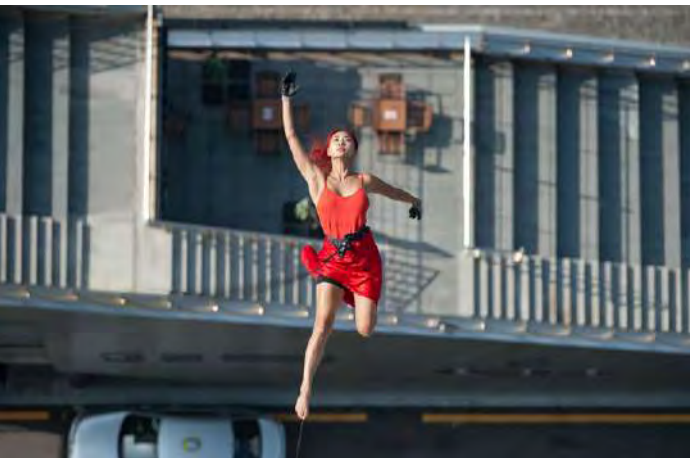
움직임의 확장에서 무대의 확장으로

최근 서커스의 움직임을 춤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목을 받은 작품이 있다. 서커스를 익힌 아크로바티자 무용가-안무가인 요안 부르주아(프랑스, Yoann Bourgeois)의 <위대한 유령(Great Ghost)>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광고 영상으로 잘 알려진 요안 부르주아의 움직임은 '중력'을 이용하는데, 트램펄린에서 튕겨 오르면서 회전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움직임은 그의 대표적 안무다. 버티컬 댄스도

‘중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춤이 기본적으로 중력에 대한 반발을 내포하는데, 서커스와 버티컬 댄스의 움직임은 중력에 대한 반발을 극대화한다. 구조물을 기어오르고 트램펄린에서 튀어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요안 부르주아의 동작을 춤 움직임의 확장으로 본다면, 버티컬 댄스는 여기에 더해 무대의 확장을 가져왔다. 무대 개념이 수평 바닥에서 수직면까지 열린 것이다. 수직면 무대(dance floor)는 기존 수평 무대를 가두고 있는 배경막(horizontal)이 없어 무대가 무한에 가깝게 열려있다. 이렇게 확장한 무대에서 관객은 경계 없는 공간에서 유영하는 피사체를 만나는 새로운 시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낯선 시각 경험은 공간 감각을 왜곡해 비현실적 상황에 빠진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고, 관객의 상상과 감성도 무대 공연을 볼 때와 달라진다.

고정관념의 중력을 넘어서다

이런 버티컬 댄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서커스나 스포츠의 아류로 예술에 끼어들려 하는 장르로 취급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움직임이 한정적이고 표현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버티컬 댄스를 예술로 보기 주저하는 쪽이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버티컬 댄스의 무용 예술적 가치는 분명하다. 트리샤 브라운이 ‘순수한 움직임’을 굳이 버티컬 댄스 형식으로 실험한 것은 비일상적인 공간이 선부른 의미의 개입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즉, 버티컬 댄스의 공간을 ‘무제(untitled)의 공간’으로 본 것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버티컬 댄스와 타 장르 간 협업 효과는 극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건물 벽을 이용한 비디오 파사드와 협업의 효과는 이미 효과와 확장성을 검증받았다. 이때까지 살펴본 것처럼 버티컬 댄스는 신기한 기술을 넘어서는 가능성 넘치는 춤이고 예술이다. 새로운 형식을 포용하지 못하는 고정관념의 중력은 경계를 넘나드는 버티컬 댄스 앞에서 힘을 잃고 있다.



» 씨드네이처의 버티컬 댄스 _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

돌아와요 부산향애

046 니, 그거 아냐? | 예술은 어디에나 있다

050 누꼬? | 생활주의 리얼리즘
부산 1세대 사진가 정인성

056 거 가봤나? | 영도 해돋이 마을



예술은 어디에나

일상 공간에서 만나는 예술

있다

글. 양화니 (주)핑크로터 대표,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계경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 잠시 활기를 띠었던 공연 행사가 또 취소되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몸도 마음도 꽁꽁 걸어 잠그고 방콕을 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는 어디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을까? 코로나가 일상이 된 지금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을 몇 군데 소개하고자 한다.

» Royyal Dog(심찬양), Walk in your shoe. 2020

영호님의 만남 영무파라드 호텔

어느 날 그래피티 아티스트 구헌주 작가의 SNS에 부산의 한 호텔 벽에 작업을 했다면 사진이 올라왔다. '호텔 외벽에 작품을 그린 건가?'하고 자세히 보니 내부에 전사가 되어 있었다. 호텔인데 숙박을 하지 않아도 보러 갈 수 있는 건지 호기심이 생겼다. 투숙객이 아니어도 관람이 가능하다고 답을 들었다.

며칠 후 담당자에게 호텔에 대한 안내를 받기로 하고, 1층 로비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가만 보니 안내데스크가 없다. 엉뚱하게 로비 가운데에 키오스크가 한 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알고 보니 비대면 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 체크인 호텔이란다. 스마트폰으로 객실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휴대폰으로 조작하는 구조이다.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딱 맞는 접객방법이 아닐까 한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19층 사무실에서 브랜딩팀 담당자를 만났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객실 전체, 복도까지 지나는 곳곳마다 작품들이 눈에 띈다. 호텔 전체가 작품으로 꾸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눈길이 가는 곳마다 작품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찬찬히 호텔을 둘러보았다. 먼저 꼭대기인 26층 레스토랑부터 찾아가니 에바 에머슨의 투게더와 데이비드 호크니의 판화가 눈에 들어온다. 특히나 부산 방문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에바 에머슨이라고 한다. 볼수록 어쩌다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는지 점점 더 궁금해진다.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가 광주에 있는 기업이었다. 어쩌다 부산까지 오게 되었을까? 알고 보니 박헌택 대표가 광주에 있는 '김넛과'라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을 만든 경험이 있었다. 영호님의 지역 작가들을 후원하며 만난 인연들이 연결되고 꾸준히 수집한 작품들이 호텔 곳곳에서 빛을 발한다. 25층 아트룸 1, 2호실은 프리미엄 객실로 뮤럴라이프와 도로시 엠 윤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도로시 엠 윤은 스와치와도 콜라보하며 '모든 순간이 마법'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색동저고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도로시 작가의 작품은 지하층 '푸룻푸룻 뮤지엄'



» 구헌주, 부산호-움직이는 섬



» 제이플로우, TAKING A WALK IN BUSAN



» 노동식, Fruit Fruit Story

에도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영무파라드 호텔은 건물 객실과 복도를 포함하여 300여 점이 전시가 되어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자랑하는 현대미술관이다. 자체적으로 5~6층 객실을 전부 부스로 꾸며 아트페어를 할 만큼 열정도 대단하다. 2020년 7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오픈한 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점차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팻프렌들리 호텔로 계속 변신 중이다.

특이한 구조의 호텔. 부산, 서울, 미국를 잇는 그래피티의 산 증인들의 작품으로 채우다

이 호텔의 하이라이트는 4개 층을 공유하고 있는 보이드 공간이다. 4~7층은 부산작가 구현주가, 8~11층은 서울 작가 jay flow(임동주)가, 12~15층은 미국 언론이 주목하는 로얄독 심찬양 작가가 맡았다. 그들이 아시아를 쌓고 그래피티를 완성하는 모습이 좋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작품을 관람하는 방법과 작품 도록, 갤러리투어 등 자세한 활동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란다.

조기종치과의원,

따뜻한 예술인들의 든든한 후원자, 약자들을 위한 후원회에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

그를 만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를 생각하면 명징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그날은 미포-청사포 구간을 걸으며 춤을 감상하는 어떤 야외예술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평소에도 여행객들을 데리고 자주 다니던 길이라 익숙했고, 자연이 주는 무대는 가을빛에 더욱 멋



» 조기중치과의원, 실내 갤러리

있었다. 폐선 부지를 따라 걸으며 중간 중간공연을 만났다. 사뿐사뿐 날아드는 동래학춤은 정말 멋진 학의 무리를 만난 느낌이었다고, 역새 사이로 펼쳐지는 화려한 춤사위에 넋을 놓고 감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걷기를 반복할 때 다정한 삼부자가 눈에 띄었다. 5살 남짓 되었을 아이와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철길을 거닐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참 다복한 가정이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물려받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눈빛을 가득 담고 있었다. 그런 그 아들이 다시 어린 아들에게 사랑을 주는 모습이 참 따뜻했다. 삼부자가 철길을 같이 거니는 그 모습이 한동안 마음속에 깊숙이 남았다.

그의 다정함은 그가 운영하는 조기중치과의 건물에도 잘 드러난다. 1984년에 개원하고 얼마 되지 않은 1986년부터 지금 지하 1층을 사용하고 있는 극단 '자갈치'가 그 증거이다. 자갈치뿐만 아니라 공간 곳곳에 걸려있는 작품을 보면 강정 후원전, 환경연합 후원전 등 약자들을 대변하는 후원 모임에서 구입한 작품들이 많다. 예술인들에게 무상으로 치료비 대신에 받기도 하고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생활비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나, 둘씩 벽에 걸어 놓은 작품들이 20여 개가 넘는다. 박병제, 천제동, 서상환, 오윤, 이석금 등 부산에서 내로라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방문객을 맞는다. 30년째 극단 자갈치의 작품에 이름만 출연하는 배우로서 아직도 예술인들을 품어주는 보급자리가 되고 있다.

그밖에도 예술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와 공공으로써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부산시청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든 일상의 공간이 예술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공간을 내가 만들 수도 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점점 더 작은 행복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줄 작은 작품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생활주의

부산 1세대 사진가 정인성

리얼리즘

글. 문진우 사진가, 본지 편집위원장

“회화가 구상의 예술이라면, 사진은 발견의 예술이다.”

1996년 타계 전까지도 자신의 손에서 **라이카***를 놓지 않았던 부산 1세대 사진가 정인성은 “사진 활동은 나의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동시대 부산에서 활동, 대한민국 두 거장

최근 지역의 많은 사진가들이 부산 사진의 새로운 전성기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먼저 새로운 갤러리의 등장을 꿈꿀 수 있다. 고급 사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고은사진미술관을 비롯해 사진 전문 갤러리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점이다. 또 하나는 순수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힘을 모아 시작한 부산국제사진제가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주목받는 작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그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하고 이끌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모로 부산 사진의 전성기를 회복하려는 좋은 징후로 보인다.

그러면 부산 사진의 이러한 전성기가 예전에도 있었던가?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가? 아 이러니하게도 그것은 한국전쟁 시기이며 그 중심인물에는 임응식과 정인성이라는 걸출한 두 거장이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장이 동시대 부산에서 활동하며 교육자로서 한국 사진문화의 정착을 위해 평생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전쟁 이후 부산을 떠난 임응식에 비해 정인성은 부산을 지키면서 창작활동은 물론 후학 양성과 부산 사진의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했다.

* 라이카(LEICA)

에른스트 라이츠 사에서 만든 카메라 브랜드. 정인성이 사용하던 기종은 레인지파인더 카메라 라이카 M3. '결정적 순간(L'instant décisif)'의 프랑스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 1908-2004)이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카메라로 잘 알려져 있다.



부산 최초 사진단체 '여광구락부' 가입

기실 정인성은 부산 사진의 여명기를 열었고 우리나라 근대 사진의 개척자이다. 정인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서는 부산 사진을 논할 수 없다고 할 정도다.

정인성은 양산에서 부농의 아들로 태어나 보통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유학하게 된다. 휘문고보에 입학, 미술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진과 운명적 만남을 하게 된다. 사진에 매료된 그는 부모를 설득해 1933년 일본으로 유학, 동경사진학교에서 사진공부를 하게 된다. 귀국 후 본인의 창작활동은 물론 부산을 비롯해 지역 사진 발전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1935년 '울산사진연구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것이다.

이후 직장일로 부산으로 적을 옮겨오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부산 사진의 여명기를 1930년 초로 보고 있으니 정인성의 활동은 여명과 때를 같이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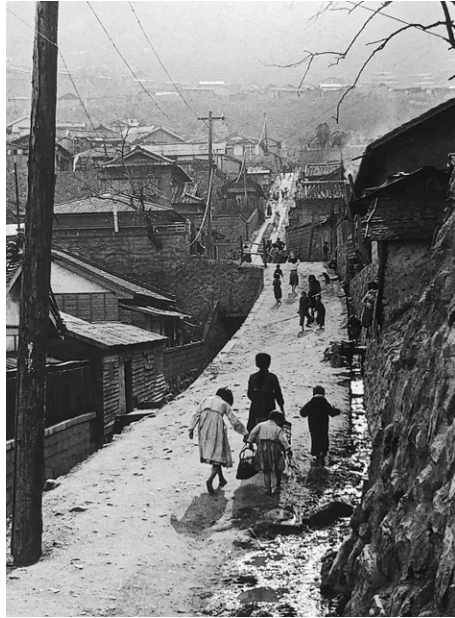
일본인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부산 최초의 사진단체인 '여광구락부(1932년 창립)'에 가입, 먼저 입회한 임응식을 만나 리얼리즘 사진을 국내에 뿌리내리게 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립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 환도 이후 임응식은 활동 공간을 서울로 옮겨가지만 정인성은 부산에 남아 활동을 이어갔다.

회화주의 사진에 대한 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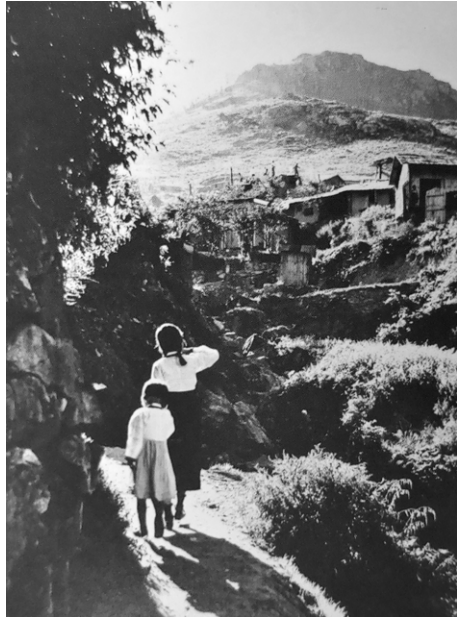
서울은 임응식이, 부산은 정인성이 주축이 되어 사협의 전국화는 물론 대한민국 사진발전에 지대한 노력을 했다. 정인성은 사협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단체 창립과 지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부산사진연구회회장(1952), 부산사진동인회회장(1964), 한국창작사진협회 중앙대표위원(1965)을 지냈다. 이외에도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단체에 고문 자문위원으로 부산 사진 발전에 열정을 바쳤다.

정인성의 작품세계는 어땠을까. 일단 그 시대의 작품 경향을 먼저 살펴보겠다. 구미는 이미 다큐멘터리와 리얼리즘이 꽃을 피우던 시기였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넘어오면서 알프레드 스티클리츠가 분리파를 선언하고 회화주의 사진으로부터 탈출을 꾀하고 새로운 사진 운동을 하던 시기였다. 다큐멘터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의 기계적 특성을 살린 기록 중심의 사진 활동이다. 유럽의 경우도 독일을 중심으로 신즉물주의를 바탕으로 한 리얼리즘 사진(리얼포토)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였다. 이 역시도 영국을 중심으로 한 회화주의 사진에 대한 반기에서 등장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1930년대 우리나라의 사진풍은 어땠는가? 20세기 초에 이미 한물간 회화주의 사진이 그때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일본인들이 중심이 된 사진구락부가 주로 회화주의 사진을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진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시기였



» 1948년 충무동



» 1953년 초량

고, 그들은 주로 대형카메라를 사용했고 스냅샷이 가능한 소형 라이카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살롱사진(회화주의 사진)'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獨 '신즉물주의' 영향, 리얼리즘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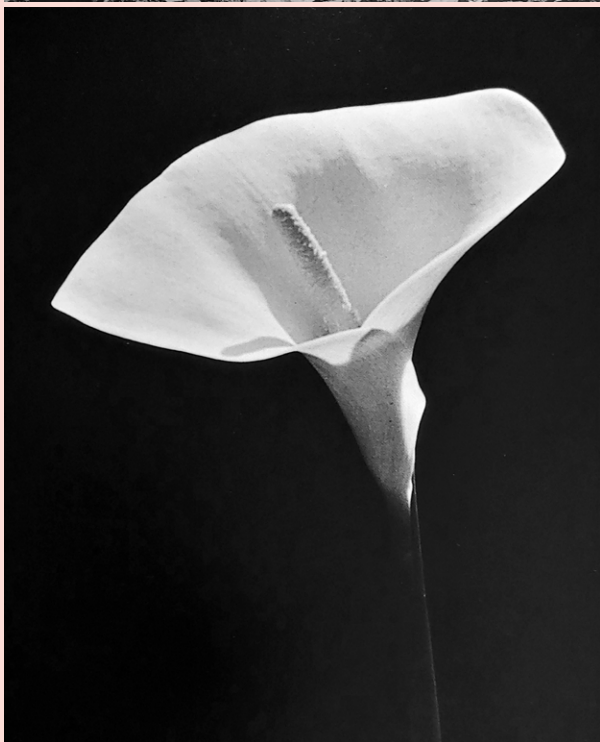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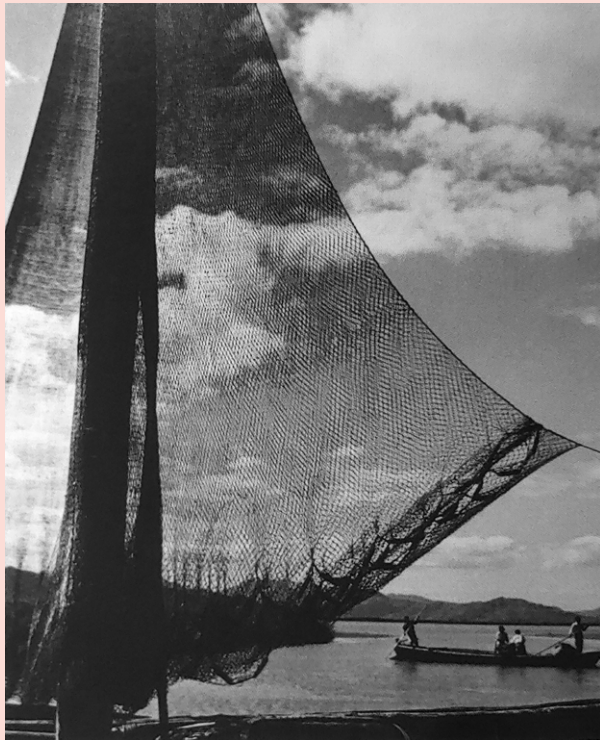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정인성은 새로운 사조였던 신즉물주의 사진에 영향을 받아 작가의 주관을 배제한 객관성을 바탕으로 기록성과 사물의 묘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작업에 몰두했다. 1980년 출간된 정인성의 사진집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사진 입문 당시 사진계의 새로운 사조였던 '사물로 하여금 사물 자신을 설명케 하라'는 신즉물주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지금도 객관적 선예사진에 사진 본질의 의의가 있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으며 일절의 연출 조작을 싫어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즉물주의 작업은 60년대 후반 70년대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

또 하나 그의 작업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생활주의 리얼리즘'과 관련된 작업이다. 이는 기록과 현실 재현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의 사회상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인성의 사진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첫 번째는 사진에 나타나는 조형성이다. 조형성이란 구도와 구성을 이용하여 대상을 화면 속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형적 시각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이카를 들고 순간포착을 하면서 조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1953년 중앙동



» 1957년 하단



» 1955년 정물(카라)



» 1958년 통영



» 왼쪽부터 임응식 이명동 정인성

두 번째는 빛에 대한 집착이다. 정인성의 많은 사진 중에 조형성과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이 역광을 이용한 촬영이다. 이는 정물에서부터 현장 사진에까지 두루 나타나고 있다. 역광사진이란 것이 원래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정인성은 이 빛을 너무 잘 이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1953년 초량에서 촬영한 두 어린 자매가 손을 잡고 모퉁이를 돌아가는 뒷모습을 역광으로 촬영한 사진은 에드워드 스타이켄이 기획한 <인간가족전>에 실린 유진 스미스의 작품을 연상케 한다.

스스로가 “난 빛에 너무 민감하다”는 표현을 할 정도였으니 사진촬영에 있어 빛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인성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시대는 전후 혼란스럽고 고달픈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진 속에는 휴머니티가 있는 따뜻한 감성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정인성 탄생 110주기

한편 정인성은 교육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부산대학교에 정식 사진과목을 개설하여 강의를 했고, 동아대학교 한성여대(지금의 경성대학교)를 비롯해서 멀리 대구까지 초빙되어 출강하는 등 후학양성에도 최선을 다했다. 필자 역시 동아대학교 재학시절인 1989년 사진학을 수강했었다.

학교를 떠나 지역사회의 사진단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원로로 활동하는 몇몇 이들은 당시 정인성에게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다. 평론가로서 이론가로서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수많은 신문에 사진의 역사에서부터 한국사진예술의 전망 등을 연재했다. 방송(동양방송)에 출연하여 주 1회씩 8개월 여 동안 31회의 사진 강좌도 했다. 이외에도 국전을 비롯해 한국국제사진살롱, 동아국제사진살롱, 부산미전, 경남도미전, 경북도미전 등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사진 콘테스트에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이렇듯 정인성은 부산 사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진계에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10여 년 전 부산 고은사진미술관에서 정인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정인성, 부산사진의 여명>이란 주제로 사진집 출판과 대규모 기획 전시를 열면서 재조명한 적이 있다. 감사해야 할 일이다. 내년이면 정인성 탄생 1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정인성이 남긴 많은 자료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후세에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도 해돋이 마을

글: 문진우 사진가, 본지 편집위원장

마을의 위치가 높은 만큼 마을 초입부터 길이 가파르다.
마을 사람들의 애환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다.

마을 중앙부를 관통하는 조금 넓은 길을
따라 올라가니 좌우로 가지를 치듯이 좁은 골목이
마을 깊숙한 곳으로 이어진다.
골목을 따라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넓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돌담, 흙벽돌로 지은 집,
심지어 길옆으로 무덤이 눈에 들어온다.





» 영도 해돋이 마을

마을 주변 조그만 텃밭에 물을 주는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 이곳에 사신지 얼마나 되세요?”

“한 50년쯤 안 되겠능교.”

그렇다. 달동네를 다니다 보면 40~50년 사신 분들은 쉽게 만난다.

어려운 시절 들어와 형편이 나아지면 나가겠지 하면서도 그대로 눌러앉아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달동네에 들어와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



» 텃밭을 가꾸는 영도 해돋이 마을 주민



» 영도 해돋이 마을 골목 풍경

무덤을 돌아 조금 위로 올라가니 '이북할매길'이 나온다.
 아주 오래전 피난 내려온 할머니가 살았다고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추정해본다.
 할아버지 한 분이 집 앞에서 늦가을 햇살을 즐기고 있다.
 집으로 살짝 들어가 보니 마당과 주방, 거실이 구분되지 않는 좁은 공간이 나온다.
 널브러진 가재도구들이 이 집의 상황을 말해준다.



> 영도 해동마을 골목 풍경

해동마을은 본래 공동묘지가 있던 자리다.

6·25 전쟁으로 유입된 피난민 판자촌 5~6채가 있었는데, 이후 난민 수용소가 조성되며 인구가 늘어났다. 피난민촌으로 형성된 해동마을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며 희망의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물론 위치가 높다 보니 해동마을을 잘 볼 수 있는 이유도 하나일 것이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조그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최근에는 조그만 마을을 관통하여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도로가 생겨났다.

“도로가 나서 교통편은 나아졌지만 조금은 불편하고 조용했던 그때가 더 좋았다”며

40년을 살아온 아주머니가 한마디 한다.

마을 맨 위쪽으로 올라가니 영도 봉래산 둘레길과 마을 전망대가 나온다.
전망대 옥상에 올라가니 부산 북항이 한눈에 들어온다. 멀리 해운대, 동래까지도 조망이 가능하다.
차를 마실 수도 있다. 마을을 돌아보고 내려오는 길에 옥상에 널린 빨래들이 눈에 들어온다.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바람에 날려 춤을 춘다. 참 편안한 풍경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풍경이란 생각이 씁쓸하게 뇌리를 스친다.



» 영도 해돋이 마을 골목 풍경



감만

○○○○○○○

그리고 재단

창의문화촌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064 듣기 | 비대면 시대, 변화 속 문화예술

| 구포시장을 떠나
영도다리를 건너온 청년 작가들

070 말하기 | 그림에도, 예술은 멈출 수 없다

코로나19로 봉쇄된 유럽의 주택가에 이른바 ‘발코니 콘서트’가 줄을 이었다. 이웃들이 발코니에 나와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재난의 시대를 버텨가는 인간의 연대 방식은 다름 아닌 문화와 예술이었다. 그 발코니에는 코로나 블루도 코로나 레드도 없었다. 한 사람의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지만 한편으론, 우리나라에서는 왜 저런 모습을 볼 수 없는지 씁쓸하기도 했다.

비대면 시대, 변화 속 문화예술

글. 남진우 (썬나나네나 대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라지는 것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지만, 벌어진 거리 사이에 만들어진 공간은 가장 슬픈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수많은 예술인이 무대와 일상을 잃었고, 전국의 모든 작은 영화관도 휴관에 들어갔다. 매출은 없는데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속 나가다 보니 적자가 쌓여만 갔다. 결국 작은 영화관 34곳을 위탁 운영하던 ‘작은 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7월 폐업을 선언하고, 영화관 운영권을 지자체에 반납했다. 이렇게 우리의 발코니는 줄어간다.

누군가는 마냥 거리를 둔 채 비워둘 수만은 없는 사회적 거리 사이의 공간을 필사적으로 메우기 위해 한계를 넘어서는 노동을 한다. 사회적 거리를 잇는 수하기 너머에는 코로나 확산의 원흉으로 지탄받았던

콜센터 직원이 있고, 쓰러져가는 택배노동자가 있다. 누군가는 비우기 위해, 누군가는 채우기 위해 쓰러져간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사이의 공간은 슬픈 공간이다. 어떻게 해야 이 슬픔의 공간을 극복할 수 있을까. 유럽의 발코니를 어떻게 동네의 마당과 옥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나는 지난 3년간의 예술인 지원 사업 활동에서 답을 찾았다.

사회적 거리 공간 메운 ‘전포동 사람들’

처음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갔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은 강당이였다. 큰 스크린과 좋은 프로젝트, 200석이 넘는 좌석은 영화를 함께 나누기에 최적의 공간이었다. 이 공간에 반해버린 나는 담당자와 함께 ‘전포마을극장’을 기획했다. 영화를 매개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부터, ‘전포마을극장’은 시작되었다. 매달 다른 테마로, 매주 한 편씩 전포마을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되었고, 후에는 고정관객이 생길 정도로 마을 주민들의 삶에 문화예술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2년간 전포종합사회복지관과 굿모닝 예술로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는 복지관이 주는 고정된 이미지를 넘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더욱이 올리는 기관과 3명의 예술인이 함께 팀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다 알차고 풍성한 기획들을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형식과는 다른 다양한 사업이나 문화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비대면 형식으로 전환을 어려워 할 때, 영화 예술인들과 협력하여 쉽게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라이브 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들도 협력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전포 할로윈 축제'는 VR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공포영화처럼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해 배포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주민 교류를 진행하였다. 복지관과 예술인들의 협력,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이렇듯 복지관과 예술인이 만나서 하는 작업은 단순히 협력의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과정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의 가장 위대한 점은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감정을 보고, 듣고, 만지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림으로, 음악으로, 춤으로, 영화로, 시로 말이다. 전포동의 사람들은 코로나19 속 이웃에 대한

걱정, 감염병의 두려움과 홀로 버티는 외로움, 사랑하는 사람의 안녕이라는 그 무형의 메시지를 작은 넥타이 조각에, 영상과 라디오에, 랜선에 담아 전했다. 이 마을은 사회적 거리 사이의 공간을 메우는 법을 안다. 코로나 때문에 용기를 내어 시도한 것이지만 지난 3년간 쌓인 경험과 노력이 등을 밀어줬다.

문화백화현상, 빈 공간 메울 재단의 역할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은 1년 단위로 활동처가 바뀐다. 그렇게 매년 사람이 떠나고 무대가 바뀐다. 시간이 좀 더 쌓이면 저마다 마을의 발코니가 될 수 있는 주민의 경험은 안타깝게 휘발된다. 보다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 계획엔 예술인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배움을 넘어 관심으로, 관심을 넘어 관계로 이어지는 공동체의 예술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계절이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 넘어진 그 자리에 계속해서 다시 넘어질지도 모른다. 대중문화는 있고 지역문화는 없는 문화백화현상의 빈 공간에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가 슬픔을 짓는다. 그래서 재난의 시대에는 예술이 공연장과 전시장을 넘어 마을로 가야 한다. 동네의 발코니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행히 이 시대를 함께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바로 예술이다.

예술은 결과만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소통하고 자신과 기관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가며 발전하는 것,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이 느껴진다면 그 또한 발현되지 않는 예술의 씨앗이지 않을까?

꽃의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는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길 기다려야 한다. 부산문화재단이 마을에 예술이 뿌리내릴 수 있는 따뜻한 토양이 되어주길 바란다.



구포시장을 떠나

영도다리를 _____ 건너온 청년 작가들

글. 오미술 레트로덕천대표 /2019, 2020 레트로봉황 레지던스 기획자

마지막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

레트로덕천이 덕천에서 영도로 이사를 왔다. 혹자는 왜 레트로영도가 아니냐고 묻는데 지리적으로 덕천에서 문화적 거점을 두고 자리 잡은 단체이기에 지역명을 따라오는 단체명은 늘 고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명을 떠나 레트로덕천은 덕천에서 건너온 구포국수집 같은 예술단체이고 우리도 이제 문헌급창, 가장칼국수처럼 문화예술 맛집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처음 2018년 3월 구포시장 앞에 자리 잡은 북구창조문화활력센터 1층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입주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각 예술 장르에서 청년작가 개인전 11회, 단체전 3회, 교류 프로젝트 1회, 아트마켓 3회를 진행하였다. 개인전은 복합문화공간이었기에 2미터가 안되는 한 쪽 벽면에 침대를 두고 '작가의 방'이라는 컨셉으로 청년작가들과 2년이 넘게 작업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공간으로 인한 전시 디피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 그리고 2020년 6월 부산문화재단 반딧불이 10호점에 입주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릴레이전 참여 작가 6인과 전시연계프로그램, 작가 워크숍, 타 단체 레트로봉황과 교류전, 청년 활동가 강연 등을 진행했다.

반딧불이 10호점은 우리를 포함한 다른 예술 장르의 3팀이 함께 사용하는 구포의 옛 야학교 건물로 10평이 안되는 기존의 작업실 공간을 창문을 막아 전시장으로 구성하였다. 전시장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전에 참여 작가들과 워크숍을 통해 공간에 대한 내용을 인지시켰다. 2020 레트로덕천 첫 번째 릴레이전은 최영환 작가의 '모든것의 존재를 보혜해주세요'는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고통받는 생물들을 기록하는 전시로 실제 구포시장과 덕천에서 주운 쓰레기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릴레이전 이승은 작가의 '경계와 경계'는 자신의 성별을 나누는 경계와 타인의 성별을 구별 짓는 경계를 경계하는 미디어 영상, 퍼포먼스, 전시연계프로그램으로 경계값과 그 경계값을 경계하는 곤란함을 표현했다. 세 번째 전시는 레트로봉황 레지던스 입주작가 5인과의 교류전으로 총 11인이 참여했으며 여성과 인권을 주제로 독립다큐멘터리 '언니' 상영회, 여성의 인권을 말하는 지역 청년 활동가 강연도 진행하였다. 전시는 레트로덕천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며 젠더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한국 사회 속에서 청년들의 의미를 질문으로 논의의 장을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교류전을 마지막으로 반딧불이 10호점에서 전시를 마쳤다.

그리고 9월 원도심 빈집활용 청년마을놀이터 사업에 선정이 되어 영도에서 주거와 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옮겼다. 무려 레트로덕천의 세 번째 공간이었고 올해 두 번째 이사였다.

새로운 공간은 레트로덕천이 추구하는 청년문화활성화를 비롯해 작가들과 함께 작업하며 토론하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었다. 창을 통해 윤슬이 아름다운 영도 바다와 남향대교가 보이는 곳에서 작가들과 예술적 토론을 하고 작업을 한다.



이번 '2020 레트로영도 아트멘터리'는 청년 예술인들과 작업을 연계하여 프로젝트 진행하며 탄탄한 예술적 인프라를 형성하고 다큐멘터리로 기록하는 프로젝트이다.

청년예술가들의 총 4회 예술 프로젝트 릴레이션 결과물은 레트로영도 아트멘터리 모든 프로젝트를 대중적인 영상 기록물(다큐멘터리) 유튜브에 올리며 대중들과 소통한다.

2020 레트로영도 아트멘터리 시민큐레이터는 모집 공고를 통해 최종 4인이 선정되고 릴레이션 작가들과 1:1 매칭으로 전시연계프로그램 기획 및 예술적 소통으로 청년 작가들과 협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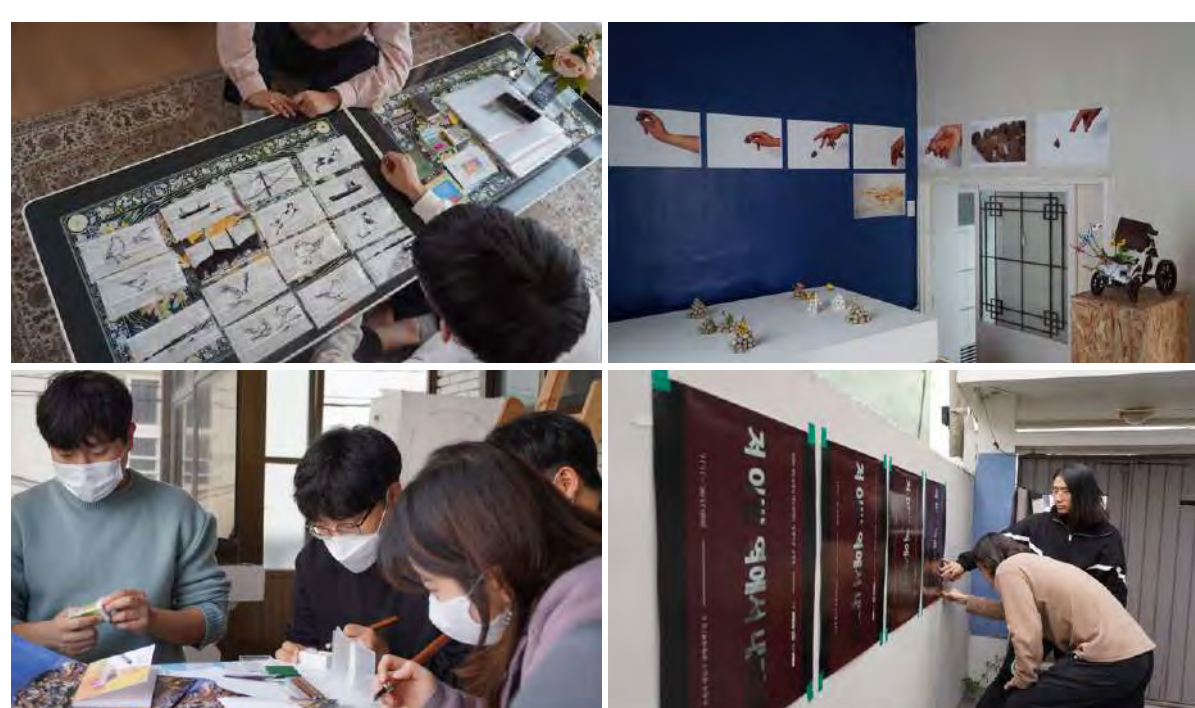
2020 레트로영도 아트멘터리 9월 릴레이션 첫 번째는 김상덕 작가의 '정도, 선을 넘어서'는 일상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림에 투영한다. 현범진 시민큐레이터의 '마스크, 영도를 품다' 전시연계프로그램은 대구 출신 김상덕 작가가 영도에 상주하며 본 이미지들을 마스크 비닐 위에 드로잉으로 표현하여 전시를 보러온 관객들에게 제공했다.

10월 두 번째 릴레이션 김성훈 작가, 박성주 작가의 '유화제 : 세상을 바라보는 두 시점'은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세상에서 더 단단해지고 넓게 바라보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 여러 시각에 유화제 같은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지윤 시민큐레이터의 '행운을 담아 도장을 찍다'는 책에서 행복의 신호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오려 지우개 도장을 제작하고 콜라주로 엮서로 만들어보는 참여 프로그램이다.

11월 세 번째 릴레이전 손한울 작가의 '저 이번역에서 내려오'은 역할의 역을 말하며 모든 것은 역할이 있고 역할의미를 전제 바탕으로 무수히 많이 맡았던 역할에서 내려놓는다. 김민진 시 민큐레이터의 'Brew some'은 핸드드립 커피 필터지에 본인이 갖고 있지만 내리고 싶은 역을 커피와 함께 내려보고 마셔본다.

손한울 작가의 릴레이전을 마지막으로 2020년 레트로덕천 릴레이전 참여 작가 6인의 전시는 끝나고 4인의 청년작가 어누리 작가(회화), 이승은 작가(영상), 오미솔 작가(회화), 전진우 작가(설치)로 구성된 '2020 레트로영도 아트멘터리' 레트로덕천팀이 영도를 주제로 12월 릴레이전에 참여한다.

그 밖에도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영도밥상, 교육프로그램 영도 미디어를 통해 청년 예술가들과 지역민들의 인프라를 확장하며 영도의 청년마을놀이터로 다양한 예술 장르의 청년 작가들과 청년 지역민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로 주체적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청년들과 전시 참여 기회가 적은 청년작가들이 모여 실험적인 예술 활동으로 궁정의 청년문화예술활성화를 꿈꿔본다.



그럼에도, 예술은 멈출 수 없다

글. 권영훈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바야흐로 언택트(Untact) 시대. 예술가들은 현재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가. 부산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홍보 매개체가 되고 있는 <힘내라! 부산예술인>은 온라인 방송을 비롯하여 다양한 비대면 예술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창작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예술가들의 삶을 응원하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부산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예술가들은 현재 어떤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을까? 60여 일의 여정을 되짚어 봤다.

비대면 예술 활동 기반 온라인 플랫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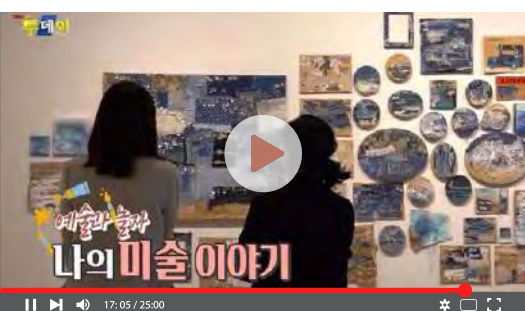
분야별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활동 및 창작 무대를 잃어버리거나 그에 따른 생계 기반이 무너져 버린 예술가들이 많았다. 공연이나 행사, 수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문화예술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기관들도,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 그러나 닛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일. 예술가들은 각자의 창작 영역에서 침울한 우리 일상을 다시금 예술향이 가득한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좁은 피트에서 많은 인원들이 연습을 할 수 없어 파트별 연습에 돌입했다. 또한 실제 공연에서도 공연의 형태를 변화하여 관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요소를 고려했다. 비대면 온

라인 활동으로 포커스를 맞춘 예술가들도 많았다. 특히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현시대 예술가들이 비대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띄었다.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려면 체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전문 플랫폼이 필요하다

창작활동 공간과 전시 공간 확보에 주력

한 공연예술단체는 공연 직전 공연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급하게 펜션을 빌려 공연을 진행했다. 어려운 여건을 뚫고 오직 관객들과의 소통을 위한 결정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다. 앞으로의 공연은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예측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대에서 구현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아주 많았다.



코로나19 사태를 떠나 공유연습실이나 공유사무실이 많이 생길길 바라는 예술가들도 많았다. 현재 상황 이전에도 공간에 대한 니즈는 계속되어 왔었고,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나 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며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청년단체들도 눈에 띈다. 청년마을놀이터에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는 빈집을 활용하여 창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작가들에게 공간을 공유하고 합동전시를 추진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수칙을 지키며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마스크에 담아 함께 어려움을 헤쳐가자는 캠페인성 기획도 돋보였다. 또한 기업의 도움으로 건물 내 창작활동 공간과 전시 공간을 확보한 사례도 있었다. 쓸쓸한 야외 옥상 건물이 예술가들로 인해 따뜻한 문화공간으로 가꾸어졌다.

가장 보통의 시간으로 돌아가길 갈망

부산의 문인들은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담은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매월 소규모 문학토크를 진행하며, 현시대를 공유하고 사회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사회와 역사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바라보고 이를 독자와 함께 상고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인의 작가들이 모여 준비한 전시회도 마련됐다. 특히나 한 작가는 “현시대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빛들은 쉼 없이 달려가는 불빛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조금은 쉬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관객과 예술가들이 치유의 시간이 되길 기대했다.

예술가들의 창작 의지는 그야말로 소용돌이치는 불꽃과도 같았다. <힘내라 부산예술인> 사업을 통해 알게 된 공통적인 것은, 예술을 갈망하는 시민들과 예술가들 모두 현장의 땀방울과 숨소리를 대면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보통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질 좋은 영상콘텐츠들을 생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다시 창작 현장에서 만날 그날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고대한다. 힘내라, 부산 예술인!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

부산은행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은행의 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힘이 되는 은행, 바로 부산은행입니다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 기업 유동성 지원
금융애로상담 및 신속지원반

자영업자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자영업 종합 지원센터 운영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종합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금융지원

서민금융

채무관리 프로그램
금융거래 취약자 재기지원

사회공헌

동백섬 동백상징숲 조성사업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은행

BNL 부산은행

계간지 「공감 그리고」 주요 배포처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배포를 희망하시는 문화공간이나 단체는 부산문화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051-745-7224)

감만창의문화촌/조선통신사역사관/CATs 사상인디스테이션/홍티아트센터/F1963/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도시철도 북 하우스(시청역, 중앙역, 연산역, 온천장역, 수정역)/부산관광안내소(노포동, 부산역, 김해공항)/부산시립시민도서관/부산시 중앙도서관/부산국립국악원/부산시립미술관/부산시민회관/부산문화회관/울속도문화회관/금정문화회관/동래문화회관/영도문화예술회관/해운대문화회관/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뜨따뜨가 운영지원센터/상상공간 아르케/토통이극장/부산지역 작은도서관, 민주공원 등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사**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부**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하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부**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 **일반회원** :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scf.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 문의전화 :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 051-745-7251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 (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테이션, 홍티아트센터,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전당, 부산시립미술관, 영광도서, 민주공원,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처 문의 : T. 051-745-7224 E-mail. bscf@bscf.or.kr



홍중혁
Defense mechanism
2016 25×20×55(cm) steel,
아크릴 페인팅, 백자갈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www.bscf.or.kr



ISSN 2586-1077